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사회복지학석사 학위논문

초등학교 고학년생의 긴장요인, 우울정서, 자살생각의 매개모형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완충효과

2023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조 은 아

초등학교 고학년생의 긴장요인, 우울정서, 자살생각의 매개모형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완충효과

지도교수 한 윤 선

이 논문을 사회복지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조 은 아

조은아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8월

위 원 장 김 혜 란 (인)

부위원장 강 상 경 (인)

위 원 한 윤 선 (인)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고학년생의 긴장요인(학업・부모・친구긴장)이 우울을 매개로 자살생각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자아존중감이 조절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 중에서도 초등학교 고학년생에게 초점을 맞춘다. 초등학교 고학년생의 자살생각은 최근에 들어서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탐색이 더욱 필요한 영역이다. 초등학교 고학년생 중 20%가 자살생각을 하고 있고, 이 시기에는 충동적으로 자살생각을 실행에 옮길 수 있어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서종한, 2018). 실제로 자살행동을 보인 청소년들은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 자살생각을 시작했고, 자살생각을 시작한 지 1년 이내에 자살계획과 자살시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다(Nock et al, 2013). 또한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의 자살생각은 비단 이 시기뿐만 아니라 고연령의 청소년 시기와 성인기까지 악영향이 지속되기 때문에(Herba et al, 2007; Reinherz et al, 2006)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 발생하는 자살생각의 메커니즘을 파악함으로써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는데 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일반긴장이론의 관점을 활용하여 연구를 설계하였다. 일반긴장이론은 청소년의 일탈적 적응을 설명하는데 탁월한 이론으로 자리매김하였고, 근래의 연구들에서는 일탈적 적응의 범위를 보다 넓혀 일반긴장이론을 활용하여 자살생각을 설명하려고 시도해왔다. 일반긴장이론의 관점에서 자살생각이 논의된 바 있고(Agnew et al, 2010; 128), 일반긴장이론의 매개적 경로(긴장 → 부정적 감정 → 자살생각)로 자살생각이 진행된다는 것이 종단연구를 포함한 경험적 연구들을 통해서도 확인되어 왔다(김중곤, 2018;

박민영, 2020; Cho et al, 2019; Hay et al, 2010a; Hay et al, 2010b). 뿐만 아니라 도피이론과 같이 자살을 설명하는 중요 이론에서도 일반긴장이론과 맥을 같이 하는 매개적 경로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Baumeister, 1990).

본 연구에서는 긴장요인으로 학업, 부모, 친구긴장을 살펴보았고, 부정적 감정으로는 우울을 상정하였다. 일반긴장이론에서는 부모긴장, 친구긴장과 같은 관계에서 오는 긴장과 학업긴장과 같은 학업성취 목표가 좌절되는 상황에서 비롯된 긴장을 주요 긴장요인으로 지목한다(Agnew, 2001). 국내의 연구들을 통해서도 부모긴장, 친구긴장, 학업긴장은 초등학교 고학년생을 포함한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긴장요인으로 보고되어 왔다(이승현 외, 2015; 이해경 외, 2006). 이러한 긴장은 다양한 부정적 감정을 낳는데 자살생각과 연관된 대표적인 부정적 감정은 우울이다(Reynolds et al, 2013). 우울은 자살생각과 연관이 깊으며, 자살생각에 가장 결정적인 위험요인으로 연구되어 왔다(이인정, 2011; 최정아, 2019; Donnelly et al, 2023). 즉, 우울을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우울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살생각을 하게 된다(Agnew, 1992).

그러나 모든 청소년에게서 긴장이 우울을 통해 자살생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같은 수준의 긴장과 우울을 경험해도 보호요인을 가지고 있다면 보다 친사회적이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Agnew et al, 2018). 일반긴장이론에서 언급하는 대표적인 보호요인 중에 하나가 자아존중감이다(Agnew, 1992). 자아존중감은 긴장과 우울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하며, 우울에 대한 다양한 대처 전략을 강구하게 하여 자살생각을 예방한다(Agnew, 1992). 따라서 자아존중감은, 아직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학업긴장, 부모긴장, 친구긴장이 우울을 매개로 자살생각에 미치는 경로를 조절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1> 초등학교 고학년생의 긴장요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정적 영향을 우울정서가 매개할 것이다.’, ‘<연구가설 2>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긴장요인이 우울정서를 매개하여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력이 완화될 것이다.’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청소년 문제행동 저연령화 실태 및 정책 과제 연구』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초등학교 4 ~ 6학년 3,164명 중에서 연구에서 활용하는 변수에 있어서 결측치가 없는 3,03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분석은 OLS 추정방법을 이용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가설 1>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중회귀분석과 PROCESS macro model 4를, <연구가설 2>를 확인하기 위해서 PROCESS macro model 59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든 연구가설은 지지되었다. 모든 긴장요인(학업긴장, 부모긴장, 친구긴장)은 우울정서를 매개로 자살생각에 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긴장요인(학업긴장, 부모긴장, 친구긴장)이 우울정서를 통해 자살생각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자아존중감이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 함의를 갖는다. 첫째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분석을 통해 청소년 자살생각의 메커니즘을 보다 깊이 탐구하였다. 둘째로, 개인 심리정서요인, 가족환경 및 학교환경과 관련된 변인들을 포괄하여 연구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셋째로, 자살생각에 있어서 중요한 개입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한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 초점을 맞추었고, 이 시기의 중요성을 다양한 이유를 제시하여 강조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실천적·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첫째로,

다차원적인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자살생각에 영향을 끼치므로, 자살생각을 예방하기 위해서 청소년 주변의 가족환경, 학교환경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부모와 교사, 사회복지사의 유기적 연계와 협력이 중요하다. 둘째로, 자아존중감은 우울을 완화하고, 자살생각을 완화하는 탁월한 보호요인으로 드러났다.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후술하였다.

주요어 : 초등학교 고학년, 청소년, 자살생각, 자아존중감, 일반긴장이론
학 번 : 2017-22471

목 차

제 1 장 서론 ·····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 1

제 2 절 연구문제 ····· 5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 6

제 1 절 초등학교 고학년생의 자살생각 ····· 6

1. 초등학교 고학년생의 자살생각 개념과 현황 ····· 6

2. 초등학교 고학년생의 발달적 특징과 자살생각 ····· 8

제 2 절 일반긴장이론과 자살생각 ····· 10

1. 일반긴장이론의 토대와 발전배경 ····· 10

2. 일반긴장이론과 자살생각 ····· 12

3. 일반긴장이론의 주요 논의 ····· 13

제 3 절 초등학교 고학년생의 자살생각 관련요인 ····· 21

1. 긴장요인 ····· 21

2. 우울정서 ····· 25

3. 자아존중감 ····· 27

제 3 장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 29

제 1 절 연구모형 ····· 29

제 2 절 연구가설 ····· 30

제 4 장 연구방법 ····· 32

제 1 절 연구대상 및 분석자료 ····· 32

제 2 절 변수의 정의 및 측정 ····· 34

1. 종속변수 : 자살생각 ····· 34
2. 독립변수: 학업긴장, 부모긴장, 친구긴장 ····· 34
3. 매개변수: 우울정서 ····· 36
4. 조절변수 : 자아존중감 ····· 37
5. 통제변수 : 성별, 경제적 수준, 성적 ····· 37
제 3 절 분석방법 ····· 40

제 5 장 연구결과 ····· 42
제 1 절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 42
1. 주요 변수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 ····· 43
2.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 44
제 2 절 가설검증 ····· 46
1. 초등학교 고학년생의 긴장요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 46
2. 긴장요인이 우울정서에 미치는 영향 ····· 48
3. 우울정서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 49
4. 긴장요인이 우울정서를 매개로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 51
5. 긴장요인이 우울정서를 매개로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완충효과 ····· 52

제 6 장 결론 ····· 56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및 논의 ····· 56
1. 긴장요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직접효과에 대한 논의 ····· 57
2. 긴장요인이 우울정서를 매개로 자살생각에 미치는 간접효과에 대한 논의 ····· 59
3. 긴장요인이 우울정서를 매개로 자살생각에 미치는 간접

효과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논의 ····· 61

제 2 절 연구의 함의 ····· 62

1. 이론적 함의 ····· 62
2. 실천 및 정책적 함의 ····· 64
3. 연구의 한계와 제언 ····· 67

참고문헌 ····· 69

Abstract ····· 88

표 목 차

〈표 4-1〉 주요 변수 정리 ····· 39
〈표 5-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42
〈표 5-2〉 종속 변수 기술 통계 ····· 43
〈표 5-3〉 독립변수 및 조절변수 기술 통계 ····· 43
〈표 5-4〉 Pearson 단순 상관관계 분석 ····· 45
〈표 5-5〉 학업·부모·친구긴장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 47
〈표 5-6〉 긴장요인이 우울정서에 미치는 영향 ····· 48
〈표 5-7〉 우울정서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 49
〈표 5-8〉 긴장요인이 우울정서를 매개로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 51
〈표 5-9〉 자아존중감의 수준에 따른 간접효과 ····· 55
〈표 5-10〉 자아존중감의 수준에 따른 수준에 따른 간접효과 차이검정 ····· 55
〈표 6-1〉 연구결과 요약 ····· 56

그 림 목 차

〈그림 3-1〉 연구모형 ····· 29
〈그림 3-2〉 연구가설 ····· 31
〈그림 5-1〉 매개모형 결과 요약 ····· 50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한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국가이면서, OECD 국가 평균 자살률의 2배를 웃도는 자살률을 보여주고 있다(통계청, 2022). 한국은 전 세대에 걸쳐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10대 청소년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된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자살이 10대 사망원인의 1위를 차지해왔으며(김동필, 2022), 10대 사망 원인 2위인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4배에 달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통계청, 2022). 청소년의 자살문제가 사회 전반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국가차원에서도 청소년의 자살행동 실태를 다양하게 조사하고 있다. 교육부의 발표에 따르면 자살위험군에 속한 청소년은 1.1%이며, 정서행동적 어려움을 보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잠재위험군 청소년은 5% 정도이다(김원태, 2022). 보건복지부의 조사에서는 자살시도를 한 청소년을 3% 정도로 보고하고 있다(박성의, 2020).

청소년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살생각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서한나, 2011; 홍세희 외, 2016a). 자살생각은 자살의 시작점으로, 자살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수이다(McLoughlin et al, 2015; Gould et al, 2003). 약한 수준으로 시작된 자살생각은 점차 심각하고 진지한 자살생각으로 발전할 수 있다(Beck et al, 1979). 그리고 심각한 자살생각은 자살시도로 이어지는데, 자살시도로 나타난 이후에는 행동을 교정하고 예방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좌현숙 외, 2010).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개입하기 위해서 주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 들어 초등학교 고학년생에 대한 개입과 연구가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김영한 외, 2013; 김은주 외, 2019; 서한나, 2011; 홍성철 외, 2014; Ben-Yehuda et al, 2012;

McLoughlin et al, 2015). 자살생각은 초등학교 고학년시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며(김영한 외, 2013; 서한나, 2011; Ortin et al, 2019), 저연령일수록 자살생각을 실행으로 옮기는 속도가 빠르고, 자살에 이르게 하는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에 쉽게 사로잡힌다(서종한, 2018).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 자살생각을 하는 비율도 중고등학생만큼 높게 나타나고(김은경, 2018),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긴장상황과 스트레스 또한 중고등학생들 못지않게 경험하고 있다(조윤주, 2010). 전국의 초등학교 고학년생부터 대학생까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갈 정도로 우울함과 절망감을 느끼는 학생 비율, 평소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이 연령집단별로 통계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김은경, 2018).

한편 자살을 설명하는 이론과 연구들에서는 자살이 일어나는 메커니즘에 대하여, 긴장상황이 감정을 매개로 하여 자살을 일으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Baumeister(1990)는 도피이론을 통해 긴장상황이 부정적 감정을 일으키고, 이것이 자살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있다고 주장했다. Shneidman(1993, 1996)은 심리적 고통이 자살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하였으며, Hollander(2008)는 청소년들은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감정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살을 시도한다고 주장했다. 스트레스로 마음이 괴롭고, 갑작스러운 정서적인 혼란을 느낄 때 자살시도를 통해 쾌감과 해방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한 국내외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다양한 연구 결과를 통해 긴장을 일으키는 상황과 부정적 감정이 청소년 자살생각에 주된 예측 요인이며(홍기혜, 2020), 긴장상황이 부정적 감정을 매개로 하여 자살생각이 발생하게 됨이 밝혀졌다(염동문 외, 2021; 원경림 외, 2019; 윤대호, 2018).

그러나 긴장이 부정적 감정으로 이어져 자살생각을 하는데 있어서, 긴장과 부정적 감정이 심하다고 모두가 일관되게 문제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자아존중감과 같은 개인의 내적자원이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Hay et al, 2010, Kaufman, 2009). 자아존중감은 오랜 시간동안 연구들을 통해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성공에도 중요한 발판이 된다

고 밝혀져 왔다. 높은 자아존중감은 건강, 행복한 인간관계, 삶의 만족도, 직업적 성취 등 삶에 전반적으로, 다방면으로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소이다(Orth et al, 2014).

특히 청소년 시기는 자아존중감이 발달되고, 자아존중감과 연관된 자아개념, 자아정체성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이다(Trzesniewski et al, 2003).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은 긍정적인 자아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유리하고, 건강한 자아개발을 추구하게 된다(이차선, 2000). 또한 학업적인 면에서도 더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는 태도로 임하여 학업적 성취에서도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건강한 자아개념을 바탕으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건강한 방식으로 함으로써 인간관계에서도 탁월함을 발휘할 수 있다(고진영 외, 2001). 자아존중감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 정서적 안녕감을 가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자살생각, 비행행동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김선숙 외, 2016).

긴장이 부정적 감정으로 이어지는 단일의 경로와 부정적 감정이 자살생각으로 이어지는 단일의 경로에서 자아존중감이 조절변수로 보호효과를 보일 수 있음을 입증한 연구들은 어느 정도 축적된 상태이다(김지영 외, 2015; 염동문 외, 2021; 오미숙 외, 2014; 이봉주 외, 2015; 이응택 외, 2016). 그러나 긴장이 부정적 감정을 매개로 자살생각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에 있어서 자아존중감이 조절효과를 보일 수 있는 지는 아직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생의 긴장(학업긴장, 부모긴장, 친구긴장)이 부정적 감정(우울정서)을 매개하여 자살생각에 끼치는 영향력이 자아존중감의 수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자살생각에 대한 개입과 자살 예방을 위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 하에 다음과 같은 세부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첫째로, 자살생각에 대한 매개모형에서 자아존중감이 완충효과를 보일 수 있는지를 검토함으로써 자살생각이 진행되는 메커니즘을 보다 정교화하고, 심층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로, 본 연구는 비교적 등한시되어 온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조기 개입 방안을 제시하고, 연령에 따른 정밀한 자살 예방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중고등학생과 초등학생의 자살 및 자살생각의 특징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에(김원경, 2014; Ben-Yehuda et al, 2012; Sheftall et al, 2016) 청소년 중에서 중고등학생에 초점을 맞춰 연구되어 온 자살생각의 메커니즘은 초등학생에게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초등학교 고학년의 시기에도 중・고등학교시기 만큼이나 자살생각이 일어나고, 저연령일수록 자살생각이 위해할 수 있고, 자살생각이 자살시도로 발현되고 나서는 행동의 교정이 어렵기 때문에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의 특징과 발달적 단계에 맞춰 자살생각에 개입하는 것은 시급하고도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자살생각은 성인기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지속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Herba et al, 2007; Reinherz et al, 2006), 청소년 자살생각에 개입하는 것은 청소년시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성인기의 높은 자살을 예방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한다.

제 2 절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초등학교 고학년생의 긴장요인(학업긴장, 부모긴장, 친구긴장)이 우울정서를 매개하여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가?

<연구문제 2> 초등학교 고학년생의 긴장요인(학업긴장, 부모긴장, 친구긴장)이 우울정서를 매개하여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이 자아존중감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가?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초등학교 고학년생의 자살생각

1. 초등학교 고학년생의 자살생각 개념과 현황

자살생각은 죽음, 자살과 관련된 생각이나 계획으로(Reynolds, 1991), 자살의 첫 시작점이다. 자살생각이 심화되면 자살 시도로 이어질 수 있고 치명적인 자살시도는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살생각은 자살시도와 자살을 예측할 수 있는 주요 지표로 사용된다(McLoughlin et al, 2015; Gould et al, 2003). 경험적 연구에 따르면 자살생각자의 33.4%는 자살계획을 세우고, 자살계획자의 60.8%가 자살시도를 한다(Nock et al, 2013).

자살계획과 자살시도를 하는 청소년 중에서,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에는 자살생각이 자살계획과 시도로 넘어가는데 1년 정도가 소요된다. 자살행동을 보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자살생각이 10살 전후로 시작되며(Nock et al, 2013), 자살생각을 하고나서 대부분 1년 이내에 자살 계획과 시도를 한다(Nock et al, 2013). 계획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행하는 자살시도의 90%와 계획된 자살시도의 60%가 자살생각을 처음 시작한 지 1년 이내에 발생한다(Nock et al, 2013).

초등학교 고학년 자살생각의 또 다른 위험성은 십여 년이 흘러 성인이 된 이후에도 자살생각과 자살시도로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Herba et al(2007)의 연구에 따르면 11세에 자살생각을 했던 초등학교 고학년생은 자살생각을 하지 않았던 초등학교 고학년생보다 십여 년이 지난 후에 자살생각을 하고 있을 비율이 11배 높았고, 자살을 시도한 비율이 6배 높았다. 이는 청소년의 자살생각이 성인기의 자살생각과 자살시도와도 높은 연관성이 있다는 Reinherz et al(2006)의 보고와 같은 맥락이다.

청소년 연령집단별로 자살생각의 비율을 조사한 연구마다 수치 차이는 있지만, 초등학교 고학년생도 중고등학생처럼 자살생각을 많이 한다는 점이 여러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염유식 외, 2019; 황순길 외, 2016).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염유식 외, 2019)에서 전국의 초중고생 7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중고교생의 28~30%, 초등학교 고학년생의 20%가 자살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 고학년생의 자살생각의 양태가 간과할 수 없는 수준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초등학교 고학년생의 자살생각 원인으로는 높은 우울과 스트레스가 지목되고 있다(김은경, 2018; 조윤주, 2010).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스트레스와 우울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로 가는 전환기에 스트레스, 우울이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유순화, 2008; Mullins et al, 2000). 그리고 이러한 스트레스와 우울의 증가는 자살생각의 증가로 이어진다(김은경, 2018; 서한나, 2011). 서한나(2011)는 초등학교 고학년의 스트레스, 우울, 자살생각의 변화추이를 종단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살생각의 수준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점차 심각해지는데, 자살생각이 점차 심각해지는 현상을 긴장과 우울의 증가에서 기인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요약하자면, 초등학교 고학년생 시기에 우울과 스트레스가 증가하여, 자살생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이들의 자살생각은 현재의 심리적 고통을 반영한 결과임을 시사한다. 또한 초등학교 고학년생의 자살생각은 심화되어 자살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사춘기 시기에만 국한되지 않고 성인기까지도 지속되어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 고학년생의 자살생각에 대한 개입은 시급하며,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2. 초등학교 고학년생의 발달적 특징과 자살생각

초등학교 고학년생은 인지적·정서적·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보이는 단계이다(Feinstein et al, 2004; Kuhn et al, 2008). Kuhn et al(2008)은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를 인생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시기라고 명명했고, Feinstein et al(2004)은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의 변화는 영유아기에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인지적 발달 이상으로 성인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했다.

본 절에서는 초등학생 고학년생의 인지적·정서적·사회적 발달 특징과 자살생각의 관련성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첫째로,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는 죽음과 자살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가능하다. 즉 이 시기에는 죽음은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이라는 행위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으며(홍성철 외, 2014) 시간전망능력의 발달로 자살과 죽음이라는 결과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7세 이후에 죽음을 이해하게 되며, 8세 중에서는 3분의 1만 자살의 의미를 이해하지만, 11세가 되면 모두가 자살을 이해한다. 자살을 알게 된 경로는 TV와 같은 대중매체를 통해서 또는 또래와의 대화를 통해서였다. 또한 자살의 개념을 이해하는 초등학생 중 대부분은 자살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알고 있다고도 전해진다(De Leo et al, 2007).

둘째로,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는 우울에 대한 취약성이 높다. 이 시기에는 사춘기로 인해 정서적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충동성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감정적인 격변과 충동성을 적절히 제어하고 사고할 수 있는 인지적 발달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Watanabe, 2014). 김은경(2018)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초등학교 고학년생부터 대학생까지 초기, 중기, 후기로 분류하였고,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초등학교 고학년생을 포함한 초기 청소년 집단에서 다른 연령집단에서보다 우울이 자살생각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초등학교 고학년생의 자살생각을 막기 위해서는 우울에

잘 대처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로, 초등학교 고학년은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영역이 확장되고 심화되는 시기이고(박성만 외, 2018; 박현정 외, 2022), 스트레스 중에서 일상에서 빈도가 높은 스트레스가 심리적 부적응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일상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더욱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민하영, 2009). 이들은 한국의 조기 교육과 선행학습 문화로 인해 사교육 시간이 증가하고, 공부 및 미래의 입시를 위한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와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박현선, 2016). 또한 사춘기로 정서적 불안정성이 증가하여 오락가락한 기분과 함께 짜증이 늘어나고, 자기주장과 반항성이 증가하여 부모와의 갈등이 발생하기가 쉽고(박현정 외, 2022), 또래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또래와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또래로부터 정서적 안정감과 친밀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만큼 또래로부터의 배척과 왕따,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박성만 외, 2018). 이렇듯 일상에서 자주 맞닥뜨리는 학업수행・부모와의 관계・친구관계에서의 스트레스가 초등학교 고학년생의 자살생각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넷째로,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는 자아존중감 형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일반적으로 자아존중감은 유아기부터 형성되기 시작하며(고진영 외, 2001; 김표민 외, 2023), 청소년기를 지나며 점차 안정적이고 일관성 높게 형성되는데, 청소년기에 발달된 자아존중감은 성인이 된 후에도 지속되며 잘 변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Trzesniewski et al, 2003).

청소년기 중에서도 초등학교 고학년의 시기에 자아존중감의 틀이 확립되어 고정적인 자아상을 갖기가 쉽고, 초등학교 고학년 이후에는 자아존중감을 높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주장이 있다(김선호 외, 2019).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외부의 부정적인 평가와 성취와 관련된 요구가 많아져 자아존중감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으며(Magro et al, 2019, Orth et al, 2018), 중학교에 입학한 후에는 신체적, 사회적, 교육적, 심리적으로 다방면의 변화를 겪으며 자아존중감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Cole

et al, 2001).

제 2 절 일반긴장이론과 자살생각

본 절에서는 일반긴장이론에 대한 개괄적 설명과 함께 일반긴장이론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또한 일반긴장이론이 본 연구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서술하였다.

1. 일반긴장이론의 토대와 발전 배경

Agnew의 일반긴장이론(General Strain Theory)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Merton의 이론이 있다. 일반긴장이론은 Merton의 이론에 뿌리를 두고 수정하고 발전하며, 경험적 연구들의 뒷받침을 통해 보완되어 왔다.

Merton은 사회가 개인에게 물질적 성공을 지나치게 강조한다고 바라보았고, 물질적 성공이라는 목표를 불평등한 사회구조로 인해 개인이 성취할 수 없는 경우에 범죄가 발생한다고 보았다(신동준, 2011; 신동준, 2019). Merton은 일탈적 적응의 방식으로 ‘혁신’과 ‘도피’를 제시하였다(Blum et al, 2015). ‘혁신’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 마약을 판매하는 것처럼 경제적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반사회적인 수단으로써 적응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Blum et al, 2015). ‘도피’는 사회에서 강조하는 목표를 거부하고 현실에서 도피해버리는 알콜 중독, 부랑자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한다(신동준, 2004). 자살의 경우에는 도피의 극단적인 사례로 포함될 수 있다(신동준, 2004).

Merton의 이론은 이후에 Agnew(1992)의 일반긴장이론으로 이어지게 되었다(이철, 2008; Froggio, 2007). Agnew는 Merton의 거시적인 이론에 개인적인 차원의 사회심리적인 요소를 결합하여 그의 일반긴장이론을 구축해나갔다. Merton은 성인의 범죄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경제적 목표가

가장 주요한 긴장 원인이라고 설명하였지만, Agnew는 청소년에 보다 관심을 갖고 청소년의 범죄뿐만 아니라 다양한 일탈행동을 설명할 수 있도록 이론을 확장해나갔다. Agnew는 Merton과 달리 경제적 목표 또는 열망 외에 다양한 차원의 긴장요소를 포함하였다. Agnew는 경제적 목표만으로 '청소년'의 일탈적 적응을 잘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김영한 외, 2013). 청소년들에게 경제적 목표는 보다 먼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친구로부터의 인기, 좋은 성적과 같은 현재의 즉각적인 목표가 일탈에 더욱 중요하게 작동하며, 일상에서의 고통스럽고 긴장을 야기하는 상황들이 더욱 중요한 긴장요인이 된다고 보았다(Agnew, 2017).

Merton의 이론은 1960년대와 1970년대를 거쳐 많은 경험적 연구들로부터 비판을 받으며 영향력을 점차 잃게 되는데(Froggio, 2007), 반면 Agnew는 198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다양한 학문 분야로부터 축적된 경험적 연구들을 참고하여 일반긴장이론을 보완하며 구축해나갔다. 결과적으로 일반긴장이론은 Merton이 경험적 연구들로부터 비판받은 많은 부분을 보완하였고, 경험적 연구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아 견고한 이론으로 부상하였다고 평가받고 있다(Froggio, 2007; 김영한 외, 2013).

2. 일반긴장이론과 자살생각

일반긴장이론은 다양한 국내외 연구를 통해 일탈적 적응의 원인과 메커니즘을 설명하는데 탁월한 이론으로 평가받는다(이성식 외, 2013). 근래의 연구들에서는 일반긴장이론을 활용하여 일탈적 적응의 범위를 보다 넓혀 자살생각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중독, 학교 부적응 등 다양한 일탈적 적응을 연구해왔다(최지원, 2020; Agnew et al, 2010).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자살생각도 일반긴장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일탈적 적응 유형 중에 하나이다. 일반긴장이론의 주창자인 Agnew 또한 일반긴장이론으로 자살생각을 설명할 수 있음을 밝혔으며(Agnew et al, 2010; 128), 다양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일반긴장이론이 자살생각을 잘 설명할 수 있음이 드러났다(김중곤, 2018; 박민영, 2020; 서희웅, 2020; 심혜인 외, 2020; 정동하 외, 2011; Cho et al, 2020; Hay et al, 2010a; Hay et al, 2010b; Heydari et al, 2013; Ivanich, 2018; Kim et al, 2020; Yildiz, 2015; Yildiz et al, 2019).

특별히 일반긴장이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살생각에 이르는 매개적 경로(긴장 → 부정적 감정→ 자살생각)가 다양한 경험적 연구들을 통해 입증되었다(김중곤, 2018; 박민영, 2020; 서희웅, 2020; 심혜인 외, 2020; 정동하 외, 2011; Cho et al, 2019; Hay et al, 2010a; Hay et al, 2010b; Heydari et al, 2013; Ivanich, 2018; Kim et al, 2020; Yildiz, 2015; Yildiz et al, 2019). 패널데이터를 활용한 종단연구를 통해서도 매개적 경로가 있음이 드러났다(Cho et al, 2019). Cho et al(2019)은 긴장(친구와의 갈등, 학교폭력피해, 아동학대 등)이 3년 후의 부정적 감정(우울과 상태불안)에 영향을 끼치며, 3년 후의 부정적 감정은 6년 후의 자살생각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했다. 이 연구에서 흥미로운 점은 부정적 감정의 매개효과가 중요하게 드러났다는 것이다. 긴장이 6년 후의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고, 3년 후의 부정적 감정에 영향을 미쳐 6년 후의 자살생각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긴장이론에서 주장하는 매개적 경로는 다른 자살이론에서도 주장

하는 맥락과 유사하다. 도피이론(Baumeister; 1990)에서는 부정적 외부 환경과 부정적 자기 평가가 합쳐져 ‘긴장’이 발생하고, 이는 ‘부정적 정서’로 이어져서 ‘자살’을 선택하도록 한다고 주장한다. 맨(Mann et al; 1999)의 경우도 ‘긴장상황’이 계기가 되어 ‘절망감, 우울감’, ‘자살생각’에 빠지도록 한다고 설명한다는 점에서 일반긴장이론과 유사하다.

3. 일반긴장이론의 주요 논의

1) 긴장

일반긴장이론에서 ‘긴장’은 일탈적 적응과 비행을 설명하는 핵심 요소로, 일탈적 적응과 비행을 유발하는 동기로 작용한다(Agnew, 1992; Agnew et al, 2018). 긴장은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예시: 학교폭력) 뿐만 아니라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스트레스의 정도’(예시: 학교폭력으로 느끼는 스트레스)도 포괄하는 넓은 개념이다(Agnew, 2001; 320-321).

Agnew는 포괄적이고 다양한 긴장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자 했다. (1) 목표 성취 방해, (2) 긍정적 자극 소멸, (3) 부정적 자극의 발현이다(Agnew, 2001). 첫째, 목표 성취 방해는 경제적 목표나 학업적 목표를 성취하는 데 있어서 좌절을 의미한다. 경제적 목표는 Merton의 이론에서 중요시 하던 긴장요소였으며, Merton의 이론에 영향을 받아 중요한 긴장요소로 고려되었다(Agnew, 1992). Merton은 경제적 목표만을 중시하였지만, Agnew는 경제적 목표는 성인들에게 당면한 문제이고, 청소년에게는 보다 현실적이고 현재적인 목표로 학업적 목표가 방해되는 경우에 큰 긴장을 유발한다고 보았다. 학업 목표 성취가 방해되는 상황으로는 시험 성적이 떨어지거나, 합격하길 원했던 중요한 시험에서 좌절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또한 공부를 지금보다 더 잘 해야 한다

는 압박감, 다른 친구들보다 뒤처지고 있다는 스트레스도 목표 성취 방해에 해당하는 긴장으로 포함된다(Agnew, 2001).

둘째, 긍정적 자극의 소멸은 의지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부모나 친한 친구가 곁을 떠나 긍정적으로 작동했던 자극이 없어지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셋째, 부정적 자극의 발현은 학교폭력이나 왕따처럼 부정적 자극이 새롭게 발생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긍정적 자극의 소멸과 부정적 자극의 발현에는 갈등으로 싸우거나 폭력이 발생하는 것처럼 단회성 사건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수시로 부모나 친구로부터 원하는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도 포함된다(Agnew, 2001). 긍정적 자극의 소멸과 부정적 자극의 발현이라는 긴장의 유형은 스트레스 연구들을 토대로 구축된 이론적 개념이다(Agnew, 2017).

세 가지 유형의 긴장(목표 성취 방해, 긍정적 자극의 소멸, 부정적 자극의 발현)은 개념적으로는 구분되지만, 실제로는 중첩되는 부분이 많다(Agnew, 1992; 59). 예를 들어 성적 부진은 목표 성취 방해에 해당하는 긴장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성적부진이 부모로부터의 체벌을 야기하는 경우에는 부정적 자극이 발현되는 긴장의 유형에도 해당할 수 있다.

이후에 세 가지 유형의 긴장이 너무 포괄적이고, 모든 긴장의 유형이 동일하게 일탈적 적응과 범죄를 이끌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자, Agnew는 일탈적 적응과 범죄에 이끌 가능성이 더 높은 긴장의 유형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착수했다(Agnew, 2001; 320-326). 그 결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다른 긴장보다 더 일탈적 적응과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1) 상황이 불공평하고 부당하다고 느껴질 때, (2) 정도가 심하다고 여겨질 때(high in magnitude), (3) 낮은 사회적 통제와 연관될 때, (4) 일탈적 적응 및 범죄를 할 동기나 압력을 제공할 때이다(Agnew, 2001; 326). 위 4가지 경우에 분노와 같은 범죄를 동기화하는 감정을 촉발할 가능성이 크고, 비(非)범죄적(non-criminal)이고 친사회적인 행동으로 이끌 인지적・감정적・행동적 대처전략을 무력화하고, 범죄적인 행동에 대한 비용 및 대가(cost)를 낮춤으로써 범죄적 행동으로 이끌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다(Agnew, 2001).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끼치는 긴장의 원인이 되는 상황으로서 “목표 성취 방해”에 해당하는 요인을 학업으로 인한 긴장(학업긴장)으로(Agnew, 2001), “긍정적 자극 소멸” 이자 “부정적 자극의 발현”에 해당하는 변수로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오는 긴장(부모긴장), 친구와의 관계에서 오는 긴장(친구긴장)으로 상정하고자 한다.

일반긴장이론에서는 목표성취가 방해되는 상황으로 단기적인 목표(좋은 성적)와 장기적인 목표(경제적 목표, 좋은 직업)가 방해받는 상황을 모두 포괄하여 설명한다.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단기적인 목표와 장기적 목표 모두가 방해받는 상황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학업은 청소년 시기에 이뤄야 할 중요한 성취로 상정되고 있어 많은 청소년들이 학업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학업이 미래에 얻을 사회적 성공과 성취에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여긴다.

또한 학업스트레스는 이후에 Agnew가 일반긴장이론에서 확장한 개념인, 일탈적 적응과 범죄에 이끌 가능성이 더 높은 긴장의 유형 중에서 “정도가 심하다고 여겨질 때(high in magnitude)”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다. 많은 연구와 보고들을 통해서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도 학업이 심각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김미숙, 2015; 민하영, 2009; 박선 외, 2012; 박현선, 2016; 오미숙 외, 2014). 성적 부진과 같은 학업적 실패는 부모와 선생님뿐만 아니라 친구와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Agnew, 2015) 부정적 자극의 발현과 긍정적 자극의 소멸 긴장 유형에도 해당될 수 있는 중요한 긴장이다.

부모와 친구는 청소년 시기에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다. 일반긴장이론에서도 부모와 친구는 중요한 존재로 자주 언급된다. 청소년 시기는 부모에게 경제적, 심리적으로 의존하는 동시에 친구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는 시기이다. 선행연구들을 통해서도 청소년의 일탈적 적응에 부모긴장, 친구긴장이 주요 위험 변수들로 밝혀져 왔다(Agnew, 2001).

부모긴장이 발생하면 청소년은 부모의 통제로부터 멀어져 일탈적 적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부모가 바람직하게 여기지 않는 일탈적

적응을 선택하기가 쉬워진다(Agnew, 2015). 따라서 부모긴장은 Agnew가 제시한 일탈적 적응과 범죄에 이끌 가능성이 더 높은 긴장의 유형 중에서 “낮은 사회적 통제와 연관될 때” 와도 관련이 있다.

친구긴장이 발생하면 관계적 위축뿐만 아니라 등교거부, 학교생활에서의 참여도 저하, 성적 하락에도 영향을 끼쳐 목표 성취 방해에 해당하는 긴장과도 연관될 수 있으며(Keith, 2018), 역량과 정체감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친구긴장은 청소년기에 특히 중요한 긴장이라고 볼 수 있다(Poulin et al, 2010).

2) 부정적 감정

긴장은 우울, 실망, 불안, 공포, 분노와 같은 부정적 감정을 경험할 가능성을 높이고(Agnew et al, 2002), 긴장에 의해 야기된 부정적 감정을 완화하기 위해 청소년들은 대처행동 중 하나로 일탈적 적응을 한다(Agnew, 1992; 60, Agnew et, al 2002; 44). 부정적 감정 중에서 분노는 일반긴장이론에서 언급하는 대표적인 감정 중에 하나이며, 우울, 실망, 공포 또한 중요한 감정으로 다뤄져왔다(Froggio, 2007).

분노는 타인에게 복수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자극하여 공격적인 행동을 하도록 부추기거나 자제력을 약화시키고, 공격적인 행동을 정당화하도록 한다(Agnew, 1992; 59). 반면 우울은 분노와 달리 타인에게 공격성을 가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도록 행동하게 한다. 약물복용과 같은 내재화행동을 일으킨다(Agnew, 2012). 우울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의 청소년이 서구권의 국가 청소년들보다 더 많이 경험하는 감정이다. 아시아권에서는 분노보다는 우울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아시아 국가에서 서구권 국가보다 분노를 부정적으로 인지하는 경향이 있고, 다른 사람들과의 화합(social harmony)과 자기통제(self-restraint)를 중시하기 때문이다(Agnew, 2015). 부정적 감정은 개인의 기질(trait)과도 연관되어 있으며, 부정적 감정을 더 많이 느끼고(high emotionality), 충동성이 높고 자기 통제를 잘 하지 못하는(low-constraint)

내재적 성향을 가진 사람의 경우에 부정적 감정이 일탈적 적응을 이끌 가능성이 더 높다(Agnew et al, 2002).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감정으로 우울을 고려하고자 한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자살생각과 같은 내재화행동은 우울과 같이 자신 안으로 깊숙이 빠져들게 하는 감정과 관련이 깊다(Agnew, 1992). 또한 우울은 자살을 예측하는 매우 중요한 변수로 기능한다. 우울은 자살하는 청소년에게서 가장 빈번하게 발견되는 심리요인이며(Reynolds et al, 2013), 단일요인으로는 가장 결정적인 위험요인으로 다수의 연구를 통해 보고되어 왔다(이인정, 2011; 최정아, 2019; Donnelly et al, 2023). 일반긴장이론을 토대로 한 자살연구에서도 우울을 중요하게 다뤄왔으며(Ivanich et al, 2018; Kim et al, 2020), 긴장이 우울을 포함한 부정적 감정을 매개하여 자살생각으로 이어진다는 결과들이 다수 보고되어 왔다(박민영, 2020; Hay et al, 2010a; Hong et al, 2015; Kim et al, 2020; Sigfusdottir et al, 2013).

3) 대처전략과 보호요인

긴장과 부정적 감정이 일탈적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지만, 긴장과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는 모든 청소년들이 일탈적 적응을 선택하지는 않는다. 일부 청소년만 일탈적 적응을 보인다. 연구들을 종합하여 보면 긴장이 일탈적 적응에 끼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낮거나 보통이하의 수준이다(Agnew et al, 2002). 따라서 Agnew et al(2002; 44)은 일반긴장이론이 발전하기 위해서 동일한 긴장과 부정적 감정 속에서 다른 행동양식을 보이는 현상에 대해서 더 관심을 쏟아야 하며, 그 사이에 어떤 변수들이 작동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Agnew(1992)는 먼저 보호요인으로 인지적, 행동적, 정서적 대처전략을 제시한다. 대처전략을 통해 긴장상황 속에서도 긴장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부정적 감정을 완화하고, 일탈적 적응을 할 필요성을 낮출 수 있다. 인지적 전략은 역경과 고난의 중요성을 최소화하거나, 부정적 결과를 축

소하고 긍정적 결과를 확대해석하거나, 고난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함으로써 부정적 상황과 긴장에 대한 주관적 스트레스를 적게 느끼도록 한다(Agnew, 1992; 66-68). 행동적 전략으로는 "긍정적 결과를 최대화하고, 부정적 결과를 최소화"하는 행동과 "복수를 하는 행동(vengeful behavior)" 등이 있다. 예를 들어 학교폭력이 일어나서 학교를 전학 가는 경우가 부정적 결과를 최소화하는 행동적 전략이 될 수 있고, 자신에게 위해나 부정적 자극을 준 사람에게 교묘하게 고통을 가하는 방식 등이 복수를 하는 행동이 될 수 있다(Agnew, 1992; 69). 정서적 전략으로는 부정적 감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울증 약을 복용한다거나, 운동과 같은 심신의 수련을 하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Agnew, 1992; 69-70)

또한 Agnew는 "개인의 자원", "사회적 지지"가 누군가는 일탈적 적응을 하고, 누군가는 하지 않는지를 판가름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위 세 가지 요소는 전술한 인지적·행동적·정서적 전략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일탈적 적응을 하지 않도록 돕는 제약으로서 기능하게 된다(Agnew, 1992; 71). Agnew는 개인의 자원으로는 "기질, 지능, 창의성,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자아효능감, 자아존중감"을 예로 들었다(Agnew, 1992; 71). 사회적 지지로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제도적 지원, 정서적 지원" 등이 해당된다(Agnew, 1992; 72).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자아존중감을 고려하고자 한다. 자아존중감은 일반긴장이론에서 "개인의 자원"중에 하나로 자주 언급되는 대표적인 보호요인이다(Agnew, 1992; Agnew et al, 2002). 또한 자아존중감은 사회적지지가 부재한 경우에도 자신을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자원으로 작동할 수 있다. 실제로 우울과 자살생각에 깊이 몰입된 청소년들은 주변인으로부터 고립되어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며, 주변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비관에 빠지기가 쉽다. 청소년 시기에는 어른들이 보았을 때 별일이 아닌 사소한 인간관계의 문제를 크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부모와 친구들로부터의 지지와 지원보다 사소한 갈등을 더욱 크게 여겨 사회적 지지를

인식하기 보다는 고립감에 빠지기가 쉽다. 또한 자살생각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자아존중감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대처기술을 더욱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Agnew, 1992). 자아존중감은 긴장상황에 인지적으로도 더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며(최미례, 2000), 우울을 완화하는 정서적 대처전략도 보다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이응택 외, 2016).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행동적 전략을 취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Branden, 2021).

실제로 경험적 연구들을 통해서 자아존중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력과 보호효과가 강력하다고 알려져 있다(김선숙 외, 2016). 자살생각을 경험한 청소년은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인다(Pinto et al, 1996). 자살생각 점수를 상, 중, 하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에서도 자아존중감이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자살생각이 낮은 집단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이경진 외, 2004).

본 절에서는 일반긴장이론의 발전배경과 일반긴장이론으로 자살생각을 설명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 일반긴장이론의 주요 요소들을 제시하였다. 일반긴장이론은 Merton의 이론에 뿌리를 두고 청소년의 일탈적 적응을 다양한 긴장요인으로 설명하고자 하였으며, 자살생각을 설명하는데도 다양한 연구를 통해 활용되었고, 결과적으로 자살생각을 잘 설명하는 이론으로 입증되어 왔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일반긴장이론을 바탕으로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으며, 일반긴장이론의 핵심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긴장요인(학업긴장・부모긴장・친구긴장)과 부정적 감정(우울), 보호요인(자아존중감)을 변수로 설정하였다.

이는 다차원적인 긴장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단일 긴장요인에 주목해 온 선행연구들보다 더욱 포괄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일반긴장이론에서는 “목표 성취 방해”, “긍정적 자극 소멸”, “부정적 자극 발현”과 같은 긴장이 야기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제

시하고 있고, 청소년의 자살생각에는 다차원적인 요인이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김보영 외, 2019; 문동규 외, 2011; 홍세희 외, 2016a), 선행연구들에서는 단일 긴장요인(학교폭력 등)에 주목해 왔다. 친구관계와 가정에서의 긴장뿐만 아니라 학업으로 인한 긴장도 초등학교 고학년의 시기에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긴장요인을 포괄하여 고려할 때 청소년 자살생각에 대한 더욱 풍부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을 보호요인으로 고려하였기에, 보호요인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예측 변수들을 위주로 설명해온 기존 연구들보다 더 심화된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 일반긴장이론에서는 같은 종류, 비슷한 강도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어도 보호요인에 따라 일탈적 적응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보호요인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Agnew et al, 2002). 실제로 보호요인이 위험요인보다 일탈적 적응에 더 큰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한상철, 2006). 또한 보호요인에 주목하는 것은 사회복지실천에서 강조하는 강점관점과 임파워먼트와도 연관이 있어(김수정, 2008) 개입 시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제 3 절 초등학교 고학년생의 자살생각 관련요인

1. 긴장요인

메타분석에 따르면, 학업・부모・친구 긴장은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일관되게 큰 효과크기를 보고하는 요인이다. 홍세희 외(2016a)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살생각 위험요인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 부모학대(0.676), 학업스트레스(0.570), 친구로부터의 따돌림(0.569)의 순으로 큰 효과크기를 보였다. 문동규 외(2011)의 청소년 자살생각 영향요인에 대한 메타 분석결과, 학교환경변인의 하위변인으로 친구관계스트레스, 학교생활스트레스의 효과크기가 높았으며, 가족환경변인으로는 학대경험과 가정스트레스가 큰 효과크기를 보였다.

1) 학업긴장

초등학교 고학년생들의 학업성적과 성취 수준이 상급학교의 진학과 이후의 성적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상정되기 때문에(민하영, 2009) 초등학교 고학년생들도 학업긴장을 많이 느끼고 있다. 초등학교 고학년생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들에서 학업긴장은 일상생활 긴장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고되어 왔다(민하영, 2009; 오미숙 외, 2014). 이는 조기교육과 선행학습이 이제는 중고등학생에만 국한된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점차적으로 한국사회의 교육열이 초등학교 고학년생까지 하향 확대되고,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김미숙, 2015; 박선 외, 2012; 박현선, 2016).

사회적으로 높게 형성된 학업긴장은 청소년 자살생각의 주요 원인으로 작동한다(김봉자, 2013; 문경숙, 2006; 박경애 외 1993; 최원기, 2004; 통계청 2011; 하상훈, 2001; 하연희, 2001; 한기석 외, 1992).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학업긴장은 일관되게 자살행동의 주요 원

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문경숙, 2006; 박병금, 2007; 오현아 외 2008; 황영순, 2003;). 초등학교 고학년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김영선 외, 2010)에서도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자살생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김영선 외, 2010), 학업스트레스가 아닌 객관적 지표인 학업성적을 변수로 삼아 측정했기 때문에 주관적인 학업긴장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초등학생의 학업긴장이 자살생각에 끼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과 연구가 요구된다.

한편 학업긴장은 우울을 매개로 자살생각에 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학업긴장은 우울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고(유효숙 외, 2016; 윤명숙 외, 2009; 임은미 외, 2009), 이는 초등학교 고학년생을 대상으로 포함하여 실사한 연구결과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보고되었다(김현순, 2014; 오미숙 외, 2014; 윤명숙 외, 2009).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서, 학업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에 속할수록 우울이 높게 나타났다(남윤주, 2008). 초등학교 4학년부터 5년간 종단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업스트레스의 변화율은 우울의 변화율에 직접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했다(김현순, 2014). 초등학교 4학년 시기에 학업스트레스가 높은 학생들은 우울도 높게 나타났으며, 5년간 학업스트레스가 빠르게 증가할수록 우울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를 통해 초등학교 고학년생의 시기에도 학업스트레스에 따라 우울이 변화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2) 부모긴장

청소년기는 부모의 지도와 감독이 필요한 시기로, 부모로부터의 따뜻한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 부모로부터의 애정과 지지를 받지 못하고, 부모와의 애착이 부족한 경우에 청소년이 자살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Van Renen et al, 2008). 이해경 외(2006)는 초등학생이 자살충동을 느낀 원인으로 부모와의 갈등이라고 보고한 학생이 34.5%를 차지한다고 보고했다. 자살생각에 있어서 부모-자녀관계의 영향력이 종단연구를 통해서도 밝혀졌다. 청소년 자살생각을 종단 연구한 결과, 부모긴장이 높은 학생일수록 자살생각이 증가하는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김소영 외, 2012). 자살생각 뿐만 아니라 부모와의 긴장은 자살동기(송인한 외, 2011; Kidd et al, 2006; Winfree, 2010)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자살에 영향을 준다고 밝혀졌다(김재엽 외, 2009; Mullany et al, 2009).

부모긴장은 청소년의 우울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박애규, 2009). 선행연구들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와의 긍정적 관계와 부정적인 관계(부모 갈등 등)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되어 왔다. 부모-자녀관계가 좋을수록 긍정적 정서는 높고(김용희, 2009), 우울수준은 더 낮게 나타났다(이은희 외, 2000). 부모와의 갈등과 학대는 청소년의 우울을 증가시키고(김영희 외, 2008; 좌현숙, 2015), 부모의 무관심과 거부는 우울과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김애경, 2002). 초등학교 고학년생을 포함하여 4년간 종단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부모와 자녀의 긍정적인 관계가 우울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다(윤명숙 외, 2010).

3) 친구긴장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 청소년기에 친구긴장이 자살행동에 끼치는 영향력이 검토되어왔다(김은주 외, 2019; 문동규 외, 2011). 청소년 자살생각에 대한 메타연구를 진행한 문동규 외(2011)는 청소년 자살생각 유발변인으로 학교환경이 다른 환경 및 심리변인(가족환경, 사회문화, 심리요인)보다도 큰 효과크기를 보인다고 보고하였으며, 학교환경 중에서는 친구긴장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하였다.

중고등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결과들과 달리, 초등학생의 친구긴장이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명백히 입증되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김선아(2009)의 연구에서는 친구와의 유대관계, 지지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강동수(2003)의 연구에서는 따돌림을 받은 학생일수록 자살생각을 많이 한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청소년의 친구긴장은 우울을 야기하며, 우울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청소년기는 친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친구로부터 소외되거나, 무시당하거나, 이해를 받지 못할 때 우울이 증가한다(김봉금 외, 2017). 친구애착이 높고 긍정적 관계를 형성할수록, 우울이 낮아지며(박병선 외, 2017; 최규련, 2010), 남녀 청소년 모두에게서 부정적 친구관계는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다(Rubin et al, 1992; 최규련, 2010). 친구로부터 거부당하고, 놀림을 받는 청소년들은 우울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경향이 있다(Siegel, 2004). 초등학생 고학년을 대상으로 우울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자아존중감, 학업스트레스 다음요인으로 친구관계가 우울에 큰 영향력을 미쳤다(이승현 외, 2015).

2. 우울정서

1) 우울정서와 자살생각

한국 청소년의 우울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2)에 따르면 0 ~ 19세 우울증 환자 수가 2021년 한 해에만 5만 9천여 명이다. 서울 거주 중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명 중 1명은 우울 증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영신, 2017). 특히 어린나이에 겪는 우울증은 성인기에 재발율이 매우 높고(김붕년 외, 2000), 심리적 적응과 발달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위험하고, 개입이 필요하다(정지영 외, 2014).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는 우울이 증가하기 시작한다. 사춘기가 되면서 호르몬의 변화와 신체의 급성장으로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감정의 기복이 커진다. 사춘기를 전후로 우울의 빈도도 급증한다(곽금주 외, 1995). 사춘기 증상을 평균 연령보다 일찍 겪는 성조숙증 여학생의 경우 다른 여학생보다 감정적인 변화가 더 크고, 우울을 더 많이 보인다(Ge et al, 2001; Petersen, 1994). 따라서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 사춘기가 시작되면서(유준상, 2017; 윤정선, 2019), 우울감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

실제로 한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종단분석을 실시한 결과, 10세부터 우울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박미현 외, 2012). 이는 우울이 증가하는 연령이 12세라고 보고했던 외국의 연구보다 더 이른 시기이다(Angold et al, 2002). 이는 국내 청소년들이 외국 청소년보다 우울감을 더 많이 보인다는 연구결과(Lee et al, 2000)와도 일맥상통하며, 다양한 스트레스가 점점 더 저연령 청소년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과도 일치한다(김미숙, 2015; 민하영, 2009; 박선 외, 2012; 박현선, 2016 오미숙 외, 2014).

우울은 자살하는 청소년에게 가장 빈번하게 발견되는 심리요인이며(Reynolds et al, 2013), 단일요인으로는 가장 결정적인 위험요인이다(이인정, 2011; 최정아, 2019; Donnelly et al, 2023). 자살생각에 있어서도 우

울의 영향력이 강력하다고 보고되고 있다(박민영, 2020). 초등학교 고학년생의 자살행동과 우울의 관계도 이미 여러 연구들을 통해 입증되었다(김다인, 2017; 김영선 외, 2010; 김진주 외, 2011). 초・중・고등학생을 남녀로 나누어서 분석한 결과, 여러 심리적 요인 중에서 우울이 학교급과 성별을 막론하고 자살생각에 유의한 영향을 끼쳤다. 특히 여자 초등학생을 제외한 전 성별과 전 연령대 모든 학생에게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이 확인되었다(김원경, 2014).

3. 자아존중감

1) 자아존중감과 자살생각

자아존중감은 긍정적인 자아 개념으로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평가(Coopersmith, 1981)이다. Harter(1990)는 자아존중감이 전반적인 자신에 대하여 좋아하고, 수용하고, 존경하는 정도를 의미한다고 했다. Branden(2021)은 자아존중감이 살면서 맞닥뜨리게 될 도전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의미한다고 했다.

자아존중감은 외부적인 환경과 개인의 상호작용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끼치는 외부적인 환경으로는 주변인들의 평가, 사회에서 부여하는 성공의 기준 등이 있다. 개인 내적인 요소로는 내면적인 목표와 자신의 신념 및 태도 등이 있다. 외부의 부정적인 평가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다 보면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기도 한다. 그러나 외부의 부정적인 평가 속에서도 내면적인 목표와 자신의 신념에 따라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살아갈 때 자아존중감을 증진할 수 있다(Branden, 2021). 따라서 자아존중감은 주변 환경과 주위 사람들의 평가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의지, 선택, 삶의 태도 등 복합적인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광범위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 높은 적응수준을 의미하기 때문에 긴장을 방지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학습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태도를 갖고, 학업성취를 높이고, 학업에 대한 열의와 헌신을 높여 학업긴장을 줄일 수 있다(정미라 외, 2011).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대인관계 형성에도 적극적이고 도전적으로 임하고,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오은영, 2015) 부모긴장과 친구긴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긴장 자체를 낮출 가능성이 높다.

자아존중감은 우울과도 관련이 깊으며, 우울을 낮추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되어왔다(이응택 외, 2015). 김갑숙 외(2009)의 연구에서는 남녀 청소년을 분류하여 살펴본 결과 남녀 청소년 모두에게서 자아

존중감이 우울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고하였고, 이응택 외(2016)는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긍정적인 자기인식을 하기 때문에 우울이 낮아지고, 자아존중감이 낮으면 부정적인 자기인식으로 우울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았다.

위의 논의를 종합하면 자아존중감은 초등학교 고학년생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긴장, 우울, 자살생각 모두를 완화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긴장이 우울을 매개로 자살생각에 미치는 간접효과 또한 자아존중감이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워 검증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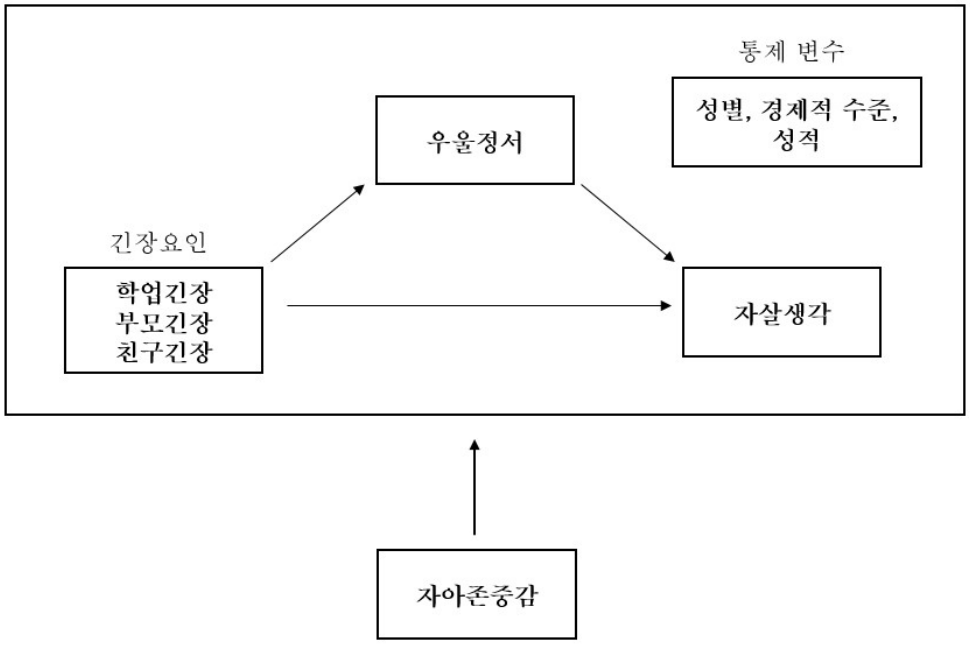
소수의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긴장이 우울을 매개로 자살생각에 미치는 간접효과에 대해서 자아존중감이 완충작용을 할 수 있음이 드러났으나(구본용 외, 2021; 김표민 외, 2023; 이응택 외, 2016), 위 연구들에서는 다차원적인 긴장을 포괄하여 살펴보지 않고 단일 긴장만을 다루었다. 구분용 외(2021)와 김표민 외(2023)는 긴장요인으로 학대경험을, 이응택 외(2016)는 긴장요인으로 학교폭력 피해라는 긴장요인만을 고려하였다. 청소년의 자살생각에는 다차원적인 요인이 상호작용을 통해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김보영 외, 2019; 문동규 외, 2011; 홍세희 외, 2016a), 청소년이 느끼고 있는 전반적인 스트레스를 이해하는데 다차원적인 요인을 포괄하여 연구를 설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학업・부모・친구긴장을 모두 고려하여 연구를 설계하였다.

제 3 장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제 1 절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생의 긴장(학업긴장, 부모긴장, 친구긴장)이 우울정서를 매개로 자살생각에 미치는 정적 영향력을 자아존중감이 조절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3-1〉 연구모형



제 2 절 연구가설

연구문제에 대해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초등학교 고학년생의 긴장요인(학업긴장, 부모긴장, 친구긴장)이 우울정서를 매개하여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가?

연구가설 1-1. 초등학교 고학년생의 긴장요인이 자살생각에 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

연구가설 1-2. 초등학교 고학년생의 긴장요인이 우울정서에 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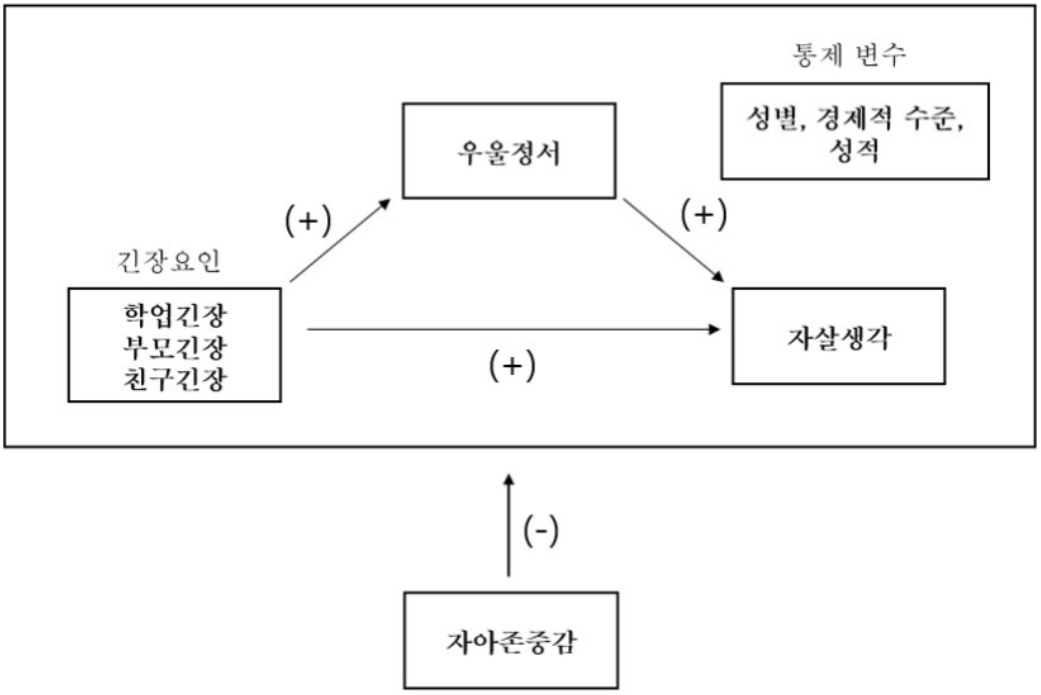
연구가설 1-3. 초등학교 고학년생의 우울정서가 자살생각에 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

연구가설 1-4. 초등학교 고학년생의 긴장요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정적 영향을 우울정서가 매개할 것이다.

<연구문제 2> 초등학교 고학년생의 긴장요인(학업긴장, 부모긴장, 친구긴장)이 우울정서를 매개하여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이 자아존중감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가?

연구가설 2.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긴장요인이 우울정서를 매개하여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력이 완화될 것이다.

<그림 3-2> 연구가설



제 4 장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대상 및 분석자료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청소년 문제행동 저연령화 실태 및 정책 과제 연구』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청소년 문제행동 저연령화 실태 및 정책 과제 연구』는 전국의 초중교 학생을 대상으로 일탈적 적응(자살, 가해, 피해, 가출 등)과 심리적 불안감, 부모 및 친구와의 갈등, 유해환경 접촉 기회 등을 측정한 자료이다. 표집은 층화다단계집락표집방식으로 지역, 학교 수 및 학생 수를 고려하여 변형비례배분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120개교가 추출되었고, 학교에 방문하여 집단설문조사를 실시하여 2013년 6월 ~ 8월에 데이터를 수집하였다[1].

본 연구에서는『청소년 문제행동 저연령화 실태 및 정책 과제 연구』

1) 본 연구에서는 2013년에 수집된, 비교적 오래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데이터 항목은 2013년 이후로 추적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보다 최신 자료로는 한국방정환재단에서 실시한『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자료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가 있다. 그러나 두 연구자료 모두 본 연구에서 활용한 모든 변수들을 측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활용할 수 없었다.『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에서는 우울, 자아존중감, 학업긴장을 다루지 않았고,『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살생각을 측정하지 않았다.

한국복지패널에서는 2015년에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모든 변수를 묻는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나 표본의 수가 458명이었다. 2015년은 2013년과 크게 시기차이가 나지 않으면서, 표본의 수가 큰 차이로 적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청소년 문제행동 저연령화 실태 및 정책 과제 연구』자료를 활용하였다.

의 대상자 중 연구의 목적에 따라 중학생을 제외한 초등학교 4 ~ 6학년 학생 3,164명 중에서 연구에서 활용하는 변수에 결측치가 하나 이상 있는 대상자 132명을 제외하고, 3,032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2].

2) 본 연구에서 결측치로 제외된 대상자의 비율은 전체의 4.17%를 차지한다. 분석에 포함된 집단과 분석에 포함되지 않은 집단을 구분하여 t-검정을 실시한 결과, 본 연구에서 활용된 변수 중에서 자살생각과 성적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에 포함된 집단이 포함되지 않은 집단보다 자살생각과 성적이 더 높게 나타났다(자살생각: $t=2.033$, $p<0.05$; 성적: $t=2.084$, $p<0.05$). 이는 연구의 제한점으로,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는데 주의를 요한다.

제 2 절 변수의 정의 및 측정

1. 종속변수: 자살생각

자살생각의 측정은 ‘나는 가끔씩 특별한 이유 없이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단일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인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2. 독립변수 : 학업긴장, 부모긴장, 친구긴장

1) 학업긴장

원자료에서는 학업수행을 측정하기 위한 11문항을 3가지의 범주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학업스트레스를 측정하는 3문항(‘학교성적이 좋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매일 공부만 하는 것이 지겨워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나는 수업 내용이 즐거운 편이다.’), 유해환경접촉기회를 측정하는 5문항(‘주변에 야한사진이나 광고지 등을 보면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주변에 술집이 있으면 몰래 들어가 보고 싶다.’등), 학업수행태도를 측정하는 3문항(‘좋은 직장을 갖기 위해서는 좋은 학교로 진학해야 한다.’, ‘성공하려면 좋은 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원자료에서 학업수행을 측정하기 위한 11문항(학업 스트레스 3문항, 유해환경접촉기회 5문항, 학업수행태도 3문항) 중 학업긴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3문항(학업스트레스 문항)을 선별하여 본 연구의 학업긴장 변수로 구성하였다.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2문항(‘학교성적이 좋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매일 공부만 하는 것이 지겨워서 스트레스를 받는다.’)의 답변은 원척도 그대로 사용하였고, 학업수

행의 즐거움을 측정하는 1문항(‘나는 수업 내용이 즐거운 편이다.’)의 답변은 역채점하였다. 모든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었다.[3] 3문항의 평균값을 계산하여 변수를 구성하였다.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alpha)는 .658으로 나타나 내적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2) 부모긴장

부모긴장은 부모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총 10문항으로 측정되었다. 부모의 신체적 언어적 학대 등 부모와의 부정적인 관계에서 오는 긴장을 묻는 5문항(‘나는 부모님과 의견충돌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나는 부모님과 대화가 안 통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나는 부모님에게 맞은 적이 많다.’, ‘나는 부모님에게 심한 욕설을 들은 적이 많다.’, ‘나는 가족들과 자주 다툰다.’)의 답변은 원척도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부모와의 긍정적 관계와 긍정적 자극을 의미하는 5문항의 답변은 역채점 하였다(‘부모님과 나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한다.’, ‘부모님은 나에게 사랑과 애정을 자주 보이신다’, ‘부모님과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나는 부모님에게 무엇이든 허물없이 이야기 한다.’, ‘나는 나의 생각이나 밖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 부모님께 자주 이야기 한다’). 모든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었다. 10문항의 평균값을 계산하여 변수를 구성하였다.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

3) 탐색적 요인분석(공통요인분석 및 직접오블리민방식)을 실시하여 잠재요인을 추출한 결과, 본 척도는 요인분석에 적합한 자료임이 나타났고(표본적합도 0.5 이상,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 x^2=8387.220, p<0.001) 학업수행 척도의 하위요인으로 위에서 기술한 3가지의 범주와 문항(학업 스트레스 3문항, 유해환경접촉기회 5문항, 학업수행태도 3문항)이 그대로 추출되었다. 특별히 학업긴장 변수에 해당하는 모든 문항은 요인적재값이 0.4이상으로 나타났기에 해당문항 간에 상관관계가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학업스트레스만을 변수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을 의미한다.

alpha)는 .847으로 높게 나타났다.

3) 친구긴장

친구긴장은 친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총 10문항으로 측정되었다. 부정적인 친구 관계에서 느끼는 긴장을 의미하는 5문항(‘나는 친구들과 의견충돌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나는 친구들의 요구가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나는 친구들로부터 따돌림 당할까 봐 항상 조심하는 편이다.’, ‘나는 친구로부터 심한 욕설을 들은 적이 있다.’, ‘나는 친구들과 가끔씩 다투는 편이다.’)의 답변은 원척도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친구로부터의 긍정적 자극을 의미하는 5문항(‘나의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나는 친구들과 서로의 고민을 솔직하게 대화한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즐겁고 행복하다.’, ‘나는 친한 친구들의 생각과 행동을 같이 하려고 노력한다.’, ‘나는 문제가 생겼을 때 부모님이나 선생님보다 친구들에게 더 의지한다.’)의 답변은 역채점하였다. 모든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었다. 10문항의 평균값을 계산하여 변수를 구성하였다.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alpha)는 .745이다.

3. 매개변수: 우울정서

우울정서를 측정하는 문항은 단일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단일문항(나는 아무 이유 없이 자주 무척 슬프고 울적할 때가 있다.’)의 답변을 원척도 그대로 사용하였다.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었다.

4. 조절변수: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총 6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묻는 4문항과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묻는 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묻는 4문항('나는 나 자신이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나 자신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나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나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에 대한 답변은 원척도 그대로 사용하였다. 부정적인 평가 2문항('나는 때때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때때로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의 답변은 역채점하여 사용하였다. 모든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었다.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alpha)는 .799이다.

5. 통제변수: 성별, 경제적 수준, 성적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모형에 성별과 경제적 수준, 성적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성별과 경제적 수준, 성적은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산정되어 왔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긴장과 부정적 감정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만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자살생각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홍영경 외, 2020; Canetto et al, 1998).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자살생각을 더 많이 한다고 알려져 있다(Canetto et al, 1998). 국내의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성별의 영향력을 고찰한 연구에서는 혼재된 연구결과들이 보고되었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자살생각을 더 많이 한다는 연구(김성희, 2012; 김영환, 2020)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자살생각을 더 많이 한다는 연구(이규현 외, 2014: 중학생; 이정숙 외, 2007)가 혼재되어 있다. 성별은 자살행동에 대한 우

울의 영향력도 조절하는 변수이다. 여성의 경우 우울의 영향력이 남성보다 더 강하게 나타난다(강상경, 2010). 본 연구에서는 남성은 0, 여성은 1인 더미변수로 투입하였다.

경제적 수준에 따라 청소년 자살행동도 영향을 받는다. 경제적 수준은 부모의 교육수준이나 가정 내 문화자본을 설명할 수 있는 변수로(김소영 외, 2012) 낮은 경제적 수준을 보이는 가정의 청소년일수록 자살생각을 포함한 자살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이규현 외, 2014; 홍영수, 2004). 경제적 수준은 단일문항(‘경제적 수준’)으로 측정되었다. 문항은 7점 리커트 척도(1점: ‘매우 못산다’, 4점: ‘보통수준’, 7점: ‘매우 잘산다’)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성적을 통제한 후에도 학업긴장이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보기 위해 성적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성적부진은 청소년들의 자살생각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이수현 외, 2015). 또한 일반긴장이론에서도 낮은 성적은 청소년 시기에 학업긴장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김영한 외, 2013). 학업성적은 단일문항(‘학업성적’)을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1점: ‘매우 못하는 수준’, 5점: ‘매우 잘하는 수준’)로 구성되었다.

<표 4-1> 주요 변수 정리

구분	변수	측정방법	변수 형태
종속변수	자살생각	- ‘나는 가끔씩 특별한 이유 없이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라는 단일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	연속
독립변수	학업긴장	- 학업으로 인한 긴장을 측정하는 3개 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 응답 값의 평균	연속
	부모긴장	- 부모와의 관계에서 오는 긍정적 자극(역채점)과 부정적 자극을 측정하는 10개 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 응답 값의 평균	연속
	친구긴장	- 친구와의 관계에서 오는 긍정적 자극(역채점)과 부정적 자극을 측정하는 10개 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 응답 값의 평균	연속
매개변수	우울정서	- ‘나는 아무 이유 없이 자주 무척 슬프고 울적할 때가 있다.’ 라는 단일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	연속
조절변수	자아존중감	-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역채점)에 대해 묻는 6개 문항의 5점리커트 척도 응답 값의 평균	연속
통제변수	성별	- 남 / 여 (남=0, 여=1)	더미
	경제적 수준	- 가족의 경제적 수준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측정하는 단일문항의 7점 리커트 척도	연속
	성적	- 주관적인 학업성적을 묻는 단일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	연속

제 3 절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22.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에서 사용하는 주요 변수(학업긴장, 부모긴장, 친구긴장, 자살생각, 우울정서, 자아존중감)를 구성하는 척도의 내적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변수의 Cronbach's α값이 모두 0.6 이상으로 내적 일관성을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가설을 검증하기 앞서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주요 변수(학업긴장, 부모긴장, 친구긴장, 자살생각, 우울정서, 자아존중감)의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을 살펴보고자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주요 변수(학업긴장, 부모긴장, 친구긴장, 자살생각, 우울정서, 자아존중감)간의 상관관계와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지 않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의 단순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통하여서도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넷째, 연구가설을 본격적으로 검증하기 앞서 회귀분석의 기본 전제인 오차항의 선형성, 정규성, 독립성, 등분산성이 성립되는지 확인하였다.

다섯째, <연구가설 1-1>, <연구가설 1-2>, <연구가설 1-3>을 검증하기 위해서 OLS(Ordinary Least Squares) 추정방법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은 종속변수가 연속형 변수일 때, 2개 이상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게 끼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연구가설 1-1> 검증을 위해서 독립변수(긴장)가 종속변수(자살생각)에 끼치는 영향력을 확인하였고, <연구가설 1-2> 검증을 위해서 독립변수(긴장)가 매개변수(우울정서)에 끼치는 영향력을 확인하였고, <연구가설 1-3> 검증을 위해서 독립변수(긴장)를 통제한 상태에서 매개변수(우울정서)가 종속변수(자살생각)에 끼치는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여섯째, <연구가설 1-4>를 검증하기 위해서 PROCESS macro(model 4)

를 활용하였다. PROCESS macro는 매개효과 분석에 많이 사용되어온 Baron & Kenny의 위계적 회귀분석과 모델링방식이 유사하면서도, 위계적 회귀분석의 몇 가지 한계점을 개선한 분석방법이다. Baron & Kenny의 위계적 회귀분석은 간접효과를 공식적으로 수량화하지 않고, 간접효과에 대한 추론검정은 실시하지 않는다는 점, 추론 단계를 거듭하면서 통계적 오류의 가능성이 커진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PROCESS macro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였다(이형권, 2020). Bootstrap sample은 5,000개로,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가설 1-4>를 검증하기 위해서 독립변수(긴장)가 매개변수(우울정서)를 통해 종속변수(자살생각)에 끼치는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일곱째, <연구가설 2>를 검증하기에 앞서 다중공선성을 예방하기 위해서 변수들을 평균중심화하였다. 그 후에 PROCESS macro(model 59)를 실시하여 <연구가설 2>를 검증하였다. <연구가설 2> 검증을 위해서 독립변수(긴장)가 매개변수(우울정서)를 매개하여 종속변수(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력이 조절변수(자아존중감)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 확인하였다.

제 5 장 연구결과

제 1 절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에 대한 일반적 특성은 <표 5-1>과 같다. 초등학교 고학년생 3,032명 중에서 남학생은 1,579명으로 52.1%를 차지하였고, 여학생은 1,453명으로 47.9%를 차지하였다. 학년별 분포로 초등학교 4학년은 1,008명(33.2%), 초등학교 5학년은 986명(32.5%), 초등학교 6학년은 1,038명(34.2%)이었다.

<표 5-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3,032)

변수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학생	1,579	52.1
	여학생	1,453	47.9
학년	4학년	1,008	33.2
	5학년	986	32.5
	6학년	1,038	34.2

2. 주요 변수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

연구의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결과는 <표 5-2>와 <표 5-3>에 제시하였다. <표 5-2>에서는 종속변수인 자살생각의 기술통계를 제시하였다. 자살생각의 평균은 1.62, 표준편차가 1.04로 낮은 수준의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표 5-3>에서는 독립변수, 매개변수, 조절변수의 기술통계를 제시하였다. 학업긴장은 평균이 2.47, 표준편차가 0.95, 부모긴장은 평균이 2.18, 표준편차가 0.76, 친구긴장은 평균이 2.26, 표준편차가 0.61로 분포하고 있었다. 긴장 중에서는 학업긴장이 평균이 제일 높고, 학생들마다 편차도 가장 크게 나타났다. 우울정서는 평균이 1.87, 표준편차가 1.16으로 분포하였고, 자아존중감은 평균이 3.73, 표준편차가 0.76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 종속변수 기술 통계

(N=3,032)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왜도	첨도
자살생각	1.62	1.04	1.00	5.00	1.66	1.85

<표 5-3> 독립변수, 매개변수, 조절변수 기술 통계

(N=3,032)

분류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왜도	첨도
독립변수	학업긴장	2.47	0.95	1.00	5.00	0.25	-0.51
	부모긴장	2.18	0.76	1.00	5.00	0.55	0.07
	친구긴장	2.26	0.61	1.00	4.80	0.34	0.07
매개변수	우울정서	1.87	1.16	1.00	5.00	1.17	0.27
조절변수	자아존중감	3.73	0.76	1.00	5.00	-0.20	-0.31

3.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가설 검증에 앞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를 <표 5-4>에 제시하였다.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r=.363 ~ .481로 0.8보다 작았고, 분산팽창인자(VIF)역시 모든 변수의 절대값이 1.604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주요 변수간의 상관관계 중에서 성별과 부모긴장, 성별과 자아존중감의 상관관계를 제외하고, 모든 변수간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첫째로, 종속변수인 자살생각과 모든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학업긴장, 부모긴장, 친구긴장(독립변수)이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286 ~ .416로 p<0.01). 우울정서(매개변수)가 자살생각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우울정서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616, p<0.01). 자아존중감(조절변수)이 높을수록 자살생각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r=-.367, p<0.01).

둘째로, 독립변수인 학업・부모・친구긴장과 매개변수인 우울정서, 조절변수인 자아존중감이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학업・부모・친구긴장이 높을수록 우울정서는 높게 나타났으며(r=.310 ~ .384, p<0.01), 자아존중감은 낮게 나타났다(r=-.474 ~ -.400, p<0.01).

셋째로, 조절변수인 자아존중감과 매개변수인 우울정서는 r=-.344, p<0.01로 부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우울정서가 낮음을 의미한다.

<표 5-4> Pearson 단순 상관관계 분석

(N=3,032)

구분		1. 자살생각	2. 학업긴장	3. 부모긴장	4. 친구긴장	5. 우울정서	6. 자아 존중감	7. 성별	8. 경제적 수준	9. 성적
종속변수	1. 자살생각	1								
독립변수	2. 학업긴장	.384**	1							
	3. 부모긴장	.416**	.481**	1						
	4. 친구긴장	.286**	.363**	.420**	1					
매개변수	5. 우울정서	.616**	.384**	.358**	.310**	1				
조절변수	6. 자아존중감	-.367**	-.400**	-.474**	-.421**	-.344**	1			
통제변수	7. 성별(여성=1)	.166**	.070**	-.027	-.031	.221**	-.010	1		
	8. 경제적 수준	-.159**	-.232**	-.257**	-.240**	-.171**	.272**	-.086**	1	
	9. 성적	-.170**	-.389**	-.219**	-.189**	-.128**	.357**	-.075**	.242**	1

*p<0.05, **p<0.01, ***p< 0.001

제 2 절 가설검증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앞서 회귀분석의 기본 전제가 성립하는지 검증하였다. 오차항의 정규성은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각각 3미만, 10미만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오차항의 등분산성과 선형성은 산점도를 통해 충족됨을 확인하였다. 오차항의 독립성은 Durbin-Watson지수가 1.89로 2에 가깝게 나타났기 때문에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1. 초등학교 고학년생의 긴장요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성별과 경제적 수준, 성적의 영향을 통제하고 긴장요인(학업긴장, 부모긴장, 친구긴장)이 자살생각에 끼치는 순수한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서 통제변수와 독립변수를 함께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5-5>와 같다.

수정된 R^2이 0.13이상 0.26 미만일 때 중간정도의 설명력을 가지며, 0.26이상일 때 높은 설명력을 보인다고 해석한다(Cohen, 1988). 모형의 설명력(adj.R^2= .249)은 중간 설명력에 해당하지만 높은 설명력의 기준치에 근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된 회귀식은 $p<0.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 168.120, $p<0.001$). 이를 통해 모형에 포함된 변수 중에서 한 개 이상의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종속변수인 자살생각 변량을 설명하는데 기여함을 확인하였다. 모든 독립변수(학업긴장, 부모긴장, 친구긴장)의 회귀계수의 t값이 $p<0.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따라서 '연구가설 1-1. 초등학교 고학년생의 긴장요인이 자살생각에 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초등학교 고학년생의 학업긴장, 친구긴장, 부모긴장 모두 자살생각에 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다른 변수의 영향력이 통제될 때, 학업긴장이 1단위 증가하면 자살생각은 0.219증가하고, 부모긴장이 1단위 증가하면 자살생각은 0.387증가하고, 친구긴장이 1단위 증가하면 자살생각은 0.168증가한다. 긴장요인 중에서 자살생각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순서는 표준화 회귀계수를 통해 비교할 수 있다. 부모긴장(β=0.282, $p<0.001$), 학업긴장(β=0.200, $p<0.001$), 친구긴장(β=0.099, $p<0.001$) 순으로 자살생각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5> 학업·부모·친구긴장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N=3,032)

결과변수 : 자살생각								
		B	SE	β	t	F	adj. R^2
독립변수	**학업긴장**	**.219**	**.021**	**.200**	**10.305*** **	168.120***	.249
	부모긴장	**.387**	**.026**	**.282**	**14.851*** **		
	친구긴장	**.168**	**.030**	**.099**	**5.548*** **		
통제변수	성별 (여성=1)	.338	.033	.163	10.233***		
	경제적 수준	-.002	.015	-.002	-.141		
	성적	.001	.020	.001	.044		
	(상수)	-.297	.140		-2.123*		

*p<0.05, **p<0.01, ***p<0.001

2. 긴장요인이 우울정서에 미치는 영향

위의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다중회귀분석으로 검증을 실시하였고, 결과를 <표 5-6>에 제시하였다. 추정된 회귀식은 $p < 0.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 = 170.043$, $p < 0.001$). 모든 긴장요인의 회귀계수 t값이 $p < 0.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학업긴장(B=0.290, t=12.209, p<0.001), 부모긴장(B=0.293, t=10.077, p<0.001), 친구긴장(B=0.294, t=8.700, p<0.001)은 우울정서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가설 1-2. 초등학교 고학년생의 긴장요인이 우울정서에 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표 5-6> 긴장요인이 우울정서에 미치는 영향

(N=3,032)

결과변수 : 우울정서							
		B	SE	β	t	F	adj.R^2
독립변수	**학업긴장**	**.290**	**.024**	**.237**	**12.209*** **		
	부모긴장	**.293**	**.029**	**.191**	**10.077*** **		
	친구긴장	**.294**	**.034**	**.155**	**8.700*** **		
통제변수	성별 (여성=1)	.503	.037	.216	13.604***	170.043***	.251
	경제적 수준	-.025	.017	-.025	-1.506		
	성적	.076	.023	.058	3.352**		
	(상수)	-.525	.156		-3.359**		

*p<0.05, **p<0.01, ***p< 0.001

3. 우울정서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를 <표 5-7>에 제시하였다. 추정된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 331.096, p< 0.001). 우울정서는 독립변수인 긴장요인을 통제하고도 자살생각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0.443, t=31.335, p<0.001). 따라서 '연구가설 1-3. 초등학교 고학년생의 우울정서가 자살생각에 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 는 지지되었다.

<표 5-7>

우울정서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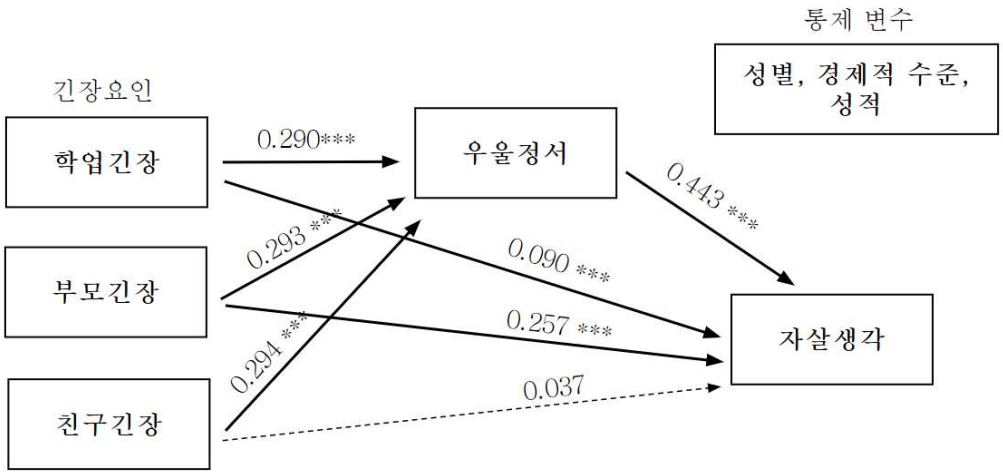
(N=3,032)

결과변수 : 자살생각								
		B	SE	β	t		F	adj.R^2
독립변수	학업긴장	.090	.019	.083	4.787 ***		331.096***	0.433
	부모긴장	.257	.023	.188	11.163 ***			
	친구긴장	.037	.027	.022	1.410			
매개변수	**우울정서**	**.443**	**.014**	**.496**	**31.335** ***			
통제변수	성별 (여성=1)	.116	.030	.056	3.907 ***			
	경제적 수준	.009	.013	.010	.696			
	성적	-.033	.018	-.028	-1.856			
	(상수)	-.064	.122		-.529			

*p<0.05, **p<0.01, ***p< 0.001

<표 5-6>의 긴장요인이 우울정서에 미치는 영향과 <표 5-7>의 우울정서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서 제시된 결과를 <그림 5-1>로 시각화하였다. 학업긴장과 부모긴장의 경우에는 우울이 자살생각을 매개로 간접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만, 자살생각에 미치는 직접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분매개모형으로 나타났고, 친구긴장의 경우 간접효과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완전매개모형으로 드러났다.

<그림 5-1> 매개모형 결과 요약



4. 긴장요인이 우울정서를 매개로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 PROCESS macro model 4를 활용하였고, 신뢰구간 95%하에 부트스트래핑을 5000회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표 5-8>에서 제시하였다.

<표 5-8>

긴장요인이 우울정서를 매개로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N=3,032)

경로	Effect(B)	BootSE	BootLLCI	BootULCI
학업긴장 → 우울정서 → 자살생각	.128	.014	.103	.156
부모긴장 → 우울정서 → 자살생각	.130	.017	.097	.163
친구긴장 → 우울정서 → 자살생각	.131	.019	.093	.169

긴장요인이 우울정서를 매개로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해서는 긴장요인이 우울정서에 미치는 효과와 우울정서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효과를 곱하여 산출한다. 이렇게 곱하여 산출된 매개적 효과를 간접효과라고 부른다. 신뢰구간(BootLLCI ~ BootULCI)에 0이 포함되지 않으면 설정된 신뢰구간 하에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한다.

분석결과를 통해 모든 긴장요인(학업긴장, 부모긴장, 친구긴장)은 우울정서를 매개로 자살생각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업긴장, 부모긴장, 친구긴장 모두 우울정서를 통해 자살생각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p<0.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정적인 영향을 끼쳤다(학업긴장: B=0.128, CI=0.103 ~ 0.156; 부모긴장: B=0.130, CI=0.097 ~ 0.163; 친구긴장: B=0.131, CI=0.093 ~ 0.169) 따라서 ‘연구가설 1-4. 초등학교 고학년생의 긴장요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정적 영향력을 우울정서가 매개할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5. 긴장요인이 우울정서를 매개로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완충효과

<연구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해서 PROCESS macro model 59를 활용하였고, 신뢰구간 95%하에 부트스트래핑 5,000회를 실시하였다.

<표 5-9>를 통해서 긴장요인이 우울정서를 매개로 자살생각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자아존중감이 각각 낮은 수준(M-1SD=-0.757), 중간 수준(M=0), 높은 수준(M+1SD=0.757)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긴장요인이 우울정서를 매개로 자살생각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자아존중감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M-1SD → M → M+1SD) 낮아지는지 또는 높아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모든 긴장요인(학업긴장, 부모긴장, 친구긴장)이 우울정서를 매개로 자살생각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자아존중감이 낮은 수준, 중간 수준, 높은 수준일 때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또한 자아존중감의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모든 긴장요인(학업긴장, 부모긴장, 친구긴장)이 우울정서를 매개로 자살생각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완화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긴장요인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학업긴장모형에서는 학업긴장이 우울정서를 매개로 자살생각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자아존중감이 낮은 수준, 중간 수준, 높은 수준일 때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학업긴장이 우울정서를 매개로 자살생각에 미치는 정적인 간접효과가 자아존중감이 평균-1표준편차, 평균, 평균+1표준편차로 높아짐에 따라 0.147 → 0.110 → 0.078로 완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로, 부모긴장모형에서는 부모긴장이 우울정서를 매개로 자살생각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자아존중감이 낮은 수준, 중간 수준, 높은 수준일 때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또한 부모긴장이 우울정서를 매개로 자살생각에 미치는 정적인 간접효과가 자아존중감의 수준이 증가함에 따

라 0.132 → 0.087 → 0.050으로 완화되었다.

셋째로, 친구긴장모형을 통해 친구긴장이 우울정서를 매개로 자살생각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자아존중감의 모든 수준(낮은 수준, 중간 수준, 높은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구긴장이 우울정서를 매개로 자살생각에 미치는 정적인 간접효과가 자아존중감의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0.129 → 0.092 → 0.061로 감소하였다.

<표 5-10>의 결과를 통해 긴장이 우울정서를 매개로 자살생각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자아존중감의 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차이검정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면 간접효과가 자아존중감에 의해 조절됨을 의미한다. Macro model 59에서는 조절된 매개지수를 따로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차이검정 결과를 통해 간접효과가 조절변수에 의해 조절되는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게 된다(이형권, 2020).

모든 긴장요인(학업긴장, 부모긴장, 친구긴장)이 우울정서를 매개로 자살생각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자아존중감의 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긴장요인별로 구체적 차이값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학업긴장모형에서는 자아존중감이 중간 수준일 때와 낮은 수준일 때 간접효과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효과2 - 효과1’) 차이값은 -0.037이었다. 신뢰구간은 -0.061 ~ -0.015로 0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임이 드러났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수준일 때와 낮을 수준일 때의 간접효과 차이 검정 결과(‘효과3 - 효과1’), 차이값은 -0.070이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로 나타났다(CI=-0.111 ~ -0.030). 자아존중감이 높은 수준일 때와 중간 수준일 때의 간접효과 차이 검정 결과(‘효과3 - 효과2’)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ontrast= -0.032, CI=-0.050 ~ -0.015).

둘째로, 부모긴장모형에서는 자아존중감이 중간 수준일 때와 낮은 수준일 때의 간접효과 차이는(‘효과2 - 효과1’)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임이 드러났다(Contrast= -0.044, CI=-0.070 ~ -0.019). 자아존중감이 높

은 수준일 때와 낮을 수준일 때의 간접효과 차이 검정 결과(‘효과3 - 효과1’),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ontrast= -0.081, CI=-0.125 ~ -0.036). 자아존중감이 높은 수준일 때와 중간 수준일 때의 간접효과 차이 검정 결과(‘효과3 - 효과2’)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ontrast= -0.037, CI=-0.056 ~ -0.017).

셋째로, 친구긴장모형에서는 자아존중감이 중간 수준일 때와 낮은 수준일 때의 간접효과 차이(‘효과2 - 효과1’)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Contrast= -0.038, CI=-0.072 ~ -0.004). 자아존중감이 높은 수준일 때와 낮을 수준일 때의 간접효과 차이가(‘효과3 - 효과1’),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Contrast= -0.069, CI=-0.127 ~ -0.011). 자아존중감이 높은 수준일 때와 중간 수준일 때의 간접효과 차이 검정 결과(‘효과3 - 효과2’)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ontrast= -0.031, CI=-0.056 ~ -0.007).

따라서 ‘연구가설 2. 초등학교 고학년생의 긴장요인이 우울정서를 매개하여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자아존중감이 완충할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표 5-9> 자아존중감의 수준에 따른 간접효과

(N=3,032)

		간접효과 경로: 긴장요인 → 우울정서 → 자살생각											
		[학업긴장모형]				[부모긴장모형]				[친구긴장모형]			
		Effect(B)	BootSE	BootLLCI	BootULCI	Effect(B)	BootSE	BootLLCI	BootULCI	Effect(B)	BootSE	BootLLCI	BootULCI
자아존중감	-.757 (M-1SD)	.147 (효과1)	.018	.113	.184	.132 (효과1)	.021	.091	.173	.129 (효과1)	.027	.076	.184
	.000 (Mean)	.110 (효과2)	.013	.086	.134	.087 (효과2)	.016	.056	.118	.092 (효과2)	.018	.056	.128
	.757 (M+1SD)	.078 (효과3)	.014	.052	.106	.050 (효과3)	.017	.018	.086	.061 (효과3)	.019	.024	.100

<표 5-10> 자아존중감의 수준에 따른 간접효과 차이검정

(N=3,032)

	간접효과 경로: 긴장요인 → 우울정서 → 자살생각											
	[학업긴장모형]				[부모긴장모형]				[친구긴장모형]			
	Contrast	BootSE	BootLLCI	BootULCI	Contrast	BootSE	BootLLCI	BootULCI	Contrast	BootSE	BootLLCI	BootULCI
효과2 - 효과1	-.037	.012	-.061	-.015	-.044	.013	-.070	-.019	-.038	.017	-.072	-.004
효과3 - 효과1	-.070	.021	-.111	-.030	-.081	.023	-.125	-.036	-.069	.029	-.127	-.011
효과3 - 효과2	-.032	.009	-.050	-.015	-.037	.010	-.056	-.017	-.031	.012	-.056	-.007

제 6 장 결 론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일반긴장이론의 관점에서 초등학교 고학년의 긴장요인이 우울정서를 매개로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자아존중감이 조절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13년에 실시한 『청소년 문제행동 저연령화 실태 및 정책 과제 연구』의 데이터 중에서 초등학교 4 ~ 6학년 3,164명의 데이터를 추출하였고,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변수에 대한 결측치가 없는 응답자 3,032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분석을 위해서 다중회귀분석과 PROCESS macro model 4, model 59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를 아래 <표 6-1>에 제시하였다.

<표 6-1> 연구결과 요약

<연구문제 1> 초등학교 고학년생의 긴장요인(학업긴장, 부모긴장, 친구긴장)이 우울정서를 매개하여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가?		
가설 1-1	초등학교 고학년생의 긴장요인이 자살생각에 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	지지
가설 1-2	초등학교 고학년생의 긴장요인이 우울정서에 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	지지
가설 1-3	초등학교 고학년생의 우울정서가 자살생각에 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	지지
가설 1-4	초등학교 고학년생의 긴장요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정적 영향을 우울정서가 매개할 것이다.	지지
<연구문제 2> 초등학교 고학년생의 긴장요인(학업긴장, 부모긴장, 친구긴장)이 우울정서를 매개하여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이 자아존중감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가?		
가설 2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긴장요인이 우울정서를 매개하여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력이 완화될 것이다.	지지

1. 긴장요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직접효과에 대한 논의

긴장요인(학업긴장, 부모긴장, 친구긴장)이 자살생각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적으로 모든 긴장요인(학업긴장, 부모긴장, 친구긴장)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정적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이는 청소년의 학업긴장이 자살생각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김봉자, 2013; 문경숙, 2006; 박경애 외 1993)와 청소년의 부모긴장이 자살생각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김도희, 2015; 김지영 외, 2015), 청소년의 친구긴장(구차순 외, 2013; 김상옥 외, 2017; 홍명숙, 2017)이 자살생각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일반긴장이론에서는 긴장을 목표 성취 방해, 긍정적 자극의 소멸과 부정적 자극의 발현으로 분류하였다. 청소년들에게 목표 성취 방해에 해당하는 긴장으로 학업성취가 방해되는 상황을 주장하였고, 긍정적 자극의 소멸과 부정적 자극의 발현에 해당하는 긴장으로 부모와 친구와의 관계에서 원하는 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학업・부모・친구긴장을 주요 긴장요인으로 보았다. 결과적으로 일반긴장이론에서 설명하는 긴장요인들은 초등학교 고학년생의 자살생각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초등학교 고학년생들에게는 다양한 삶의 영역 중에서 부모・친구・학업긴장이 중요한 의미로 작동할 수 있다는 김은주 외(2019)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며, 초등학교 고학년생들에게도 부모・친구와의 관계, 학업이 자살을 생각하게 할 만큼 중요하고도 강력한 욕구임을 시사한다. 초등학교 고학년들은 부모, 친구, 학업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하고 있으며(박현선, 2016), 부모와 친구들을 통해 소속감, 친밀감,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박성만 외, 2018), 학업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기도 하고, 열등감을 겪기도 하며 성장한다.

표준화 회귀계수 비교를 통해 부모긴장, 학업긴장, 친구긴장 순으로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생부터 고

등학생까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살생각 위험요인 예측 연구들을 메타분석한 결과 외부환경요인 중에서 자살생각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요인이 부모의 학대(부모긴장), 학업스트레스(학업긴장), 친구로부터의 따돌림(친구긴장) 순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와 유사하다(홍세희 외, 2016b). 부모긴장이 친구긴장보다 자살생각에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는 박선 외의 연구(2012)와도 일치한다. 이는 초등학교 고학년생의 자살생각에 개입할 때 부모와의 관계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부모와 자녀 간에 존중하는 관계를 형성하고, 의사소통 및 정서적 교류를 활성화하여 자살생각을 완화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2. 긴장요인이 우울정서를 매개로 자살생각에 미치는 간접효과에 대한 논의

긴장요인(학업긴장, 부모긴장, 친구긴장)이 우울정서를 매개로 자살생각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단순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적으로 모든 긴장요인이 우울정서를 매개로 자살생각에 영향을 끼침이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긴장이 부정적 감정을 통해 일탈적 적응을 한다는 일반긴장이론의 매개적 경로를 입증한 것이며, 부정적 감정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거나 회피하기 위해서 일탈적 적응을 한다는 일반긴장이론의 설명이 지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초등학교 고학년생들은 학업·부모·친구긴장으로 인한 우울감을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자살생각을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에게 긴장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정서적 지원이 필요하며, 특별히 우울감을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초등학교 고학년과 같은 저연령 청소년의 경우 부정적 감정에 사로잡혀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보고와(서종한, 2018), 초등학교 고학년생들도 우울감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많이 느끼고 있지만 인지적 미성숙으로 인해 우울감을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연구(김은경, 2018; Watanabe, 2014)들을 볼 때, 우울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긴장요인별로 세분화하여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학업긴장이 우울정서를 매개로 자살생각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학업긴장이 우울과 상관이 깊으며(남윤주 외, 2008; 황진홍 외, 2012), 우울에 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다(김현순, 2014; 오미숙 외, 2014; 윤명숙 외, 2009). 이는 한국의 경쟁적인 학업 환경, 대입에 대한 부담감이 초등학교 고학년생에게 부정적인 정서를 갖도록 하여, 자살생각에 이르게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부모긴장이 우울정서를 매개로 자살생각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청소년의 부모긴장이 우울을 매개로 자살생각으로 이어진다는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김인규 외, 2006; 김지영 외, 2015; 윤태희 외, 2014). 초등학교 고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종단연구를 실시한 결과 부모와의 애착이 부재할수록 우울이 높아지고, 우울이 높아질수록 자살생각을 많이 한다는 선행연구와도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윤태희 외, 2016). 친구긴장 또한 우울정서를 매개로 자살생각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긴장이 우울을 매개로 자살생각으로 이어진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김인규 외, 2006; 임재현 외, 2019).

한편 학업긴장과 부모긴장은 우울을 매개하여 자살생각에 간접영향을 주면서도, 긴장이 자살생각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사라지지 않는 부분매개로 나타난 반면, 친구긴장은 우울을 매개하여 자살생각에 미치는 간접효과만 남고, 직접효과는 사라지는 완전매개로 나타났다. 이는 학업·부모긴장보다 친구긴장으로 느끼는 우울이 자살생각에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일 수 있다. 또한 친구긴장이 자살생각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우울이라는 감정의 매개적 영향력이 크게 나타나고, 학업긴장과 부모긴장이 자살생각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우울 외에도 일반긴장이론에서 언급되는 불안, 실망과 같은 다른 감정들도 매개적 영향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3. 긴장요인이 우울정서를 매개로 자살생각에 미치는 간접효과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논의

연구 분석 결과 모든 긴장요인(학업긴장, 부모긴장, 친구긴장)이 우울정서를 매개로 자살생각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자아존중감이 조절할 수 있음이 드러났다.

이는 학대를 당한 경험이 부정적 감정을 통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자아존중감이 완충하였다는 연구(구본용 외, 2021; 김표민 외, 2023)와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이 부정적 감정을 매개로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자아존중감이 완충하였다는 연구(이응택 외, 2016)와 유사한 맥락이다. 또한 청소년의 학업긴장・부모긴장・친구긴장이 우울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을 자아존중감이 조절하였다는 연구결과(학업긴장: 오미숙 외, 2014; 이봉주 외, 2015; 부모긴장: 이경희 외, 2013; 친구긴장: 이봉주 외, 2015)와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을 자아존중감이 조절했다는 선행연구결과(김지영 외, 2015; 염동문 외, 2021, Kim et al, 2020)와 맥을 같이하며, 이를 확장한 형태의 연구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일반긴장이론에서 주장하는 대로 긴장과 부정적 감정이 높아도 보호요인이 작용하면 부정적인 영향력이 감소하여 일탈적 적응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으며, 자아존중감이 훌륭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이 드러났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긴장에 주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신감을 높이고, 부정적 감정의 영향력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선행연구들을 지지하는 결과이며(이응택 외, 2016; 최미례, 2000; Branden, 2021), 일반긴장이론에서 주장하는 대로 자아존중감이 인지적・정서적・행동적 영역 모두에서 대처력을 높이도록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Agnew, 1992).

제 2 절 연구의 함의

1. 이론적 함의

첫째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예측요인인 긴장요인과 정서적 요인을 통합한 매개모형을 구축하였고, 자아존중감이 매개모형에서의 간접효과를 완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하여 자살생각이 진행되는 메커니즘을 보다 깊이 탐구하였다는 의의를 갖는다. 자아존중감이 모든 긴장요인(학업・부모・친구긴장)이 우울정서를 통해 자살생각에 미치는 간접효과에 있어서 탁월한 보호요인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긴장상황에 더 저항적이되, 친사회적으로 행동하도록 하여, 긴장상황에 더 잘 대처하도록 하는 내적자원(Agnew, 1992)으로 보는 일반긴장이론의 주장이 적합함을 밝혔다.

둘째로, 본 연구에서는 개인 심리정서요인, 가족환경 및 학교환경과 관련된 변인들을 포괄하여 연구를 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청소년의 자살생각은 사회적인 현상으로 개인, 가족, 친구, 학교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한다. 다른 선행연구들을 통해서도 자살생각은 개인의 심리정서적 요인뿐만 아니라, 가족환경, 학교환경과 관련된 요인들에 영향을 받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환경과 다차원적 요인을 포괄하여 분석한 연구는 적다(김은주 외, 2019). 본 연구는 다차원적인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포괄하여 연구함으로써 청소년 자살생각에 대해 더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자 했다.

셋째로,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가 자살생각 연구에 중요한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에서는 청소년 중에서도 중학생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 왔다(김은경, 2018).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 자살생각에 개입을 해야 하는 이유들을 다양하게 제시하고자 했다. 초등학교 고학년도 자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시기이며(홍성철 외, 2014; De Leo, D. et al, 2007), 중고등학생 못지않게 높은 자살생각 비율을 보여주고(염유식 외, 2019), 자살행동으로 옮길 수 있으며(Nock

et al, 2013), 자살생각이 행동으로 발현되고 나서는 변화가 어렵고(좌현숙 외, 2010), 자살생각이 성인기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Herba et al, 2007)들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생들의 자살생각에 초점을 맞추어 탐색하였다는 의의를 갖는다.

넷째로, 전국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표집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해석을 일반화할 수 있는 여지를 갖도록 하였다. 초등학교 고학년생의 자살 연구를 다룬 선행연구의 대다수가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표집하거나 일부 학교만을 대상으로 표집하였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 한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는 일반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국단위의 사회복지 정책을 수립하는 데 제한을 줄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실천 및 정책적 함의

첫째로, 본 연구에서 부모긴장, 친구긴장, 학업긴장이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모 및 친구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학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긴장을 줄이는 정신보건 전반의 노력이 자살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자살예방을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긴장을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황순길, 2016).

부모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모두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자살생각이 다양한 주변상황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는 자녀가 가정생활에서는 문제가 없더라도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나 교우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며, 교사 및 학교 사회복지사는 학생이 학교 외의 사교육 등에서 받는 학업긴장과 가정에서 발생하는 부모긴장의 내용에 대해서 인지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정환경의 부모와 학교환경의 교사와 사회복지사가 유기적 연계와 협력을 통하여 청소년을 돕는 것이 중요하겠다.

특히 긴장요인 중에서 부모긴장이 자살생각에 끼치는 직접적 영향력이 가장 크기 때문에 청소년의 자살생각 문제에 접근할 때에 부모와 협력하고 합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수의 연구들에서도 부모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강력하며, 청소년들을 상담하는데 있어서도 부모를 참여시키고, 부모의 지지를 확보하는 경우에 상담의 질과 효과가 증진한다고 주장한다(노성덕 외, 2016). 그러나 복지현장의 전문가들(사회복지사, 상담사 등)은 청소년의 부모가 자녀에게 무관심한 경우가 많으며,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자녀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방법에 무지한 경우가 많다고 보고하고 있다(김기헌, 2013; 노성덕 외, 2016). 따라서 부모를 적절히 교육하고,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둘째로, 우울정서는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긴장요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므로, 자살생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울을 완화하기 위한 교육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살예방교육을 진행할 때,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황순길 외, 2018).

청소년들의 우울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인지적·정서적·행동적 영역 모두에서 교육이 진행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황순길 외, 2016). 인지적으로는 우울에는 다양한 인지적, 동기적, 신체적 측면이 있음(서미 외, 2018)을 인식시키고 자신의 우울 증상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돕고, 우울의 원인으로 어떤 긴장이 크게 작동하는지를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춰 인식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정서적으로는 우울을 완화할 수 있는 신체활동, 명상 프로그램 등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행동적으로는 우울을 느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자원에 대해서 알려주고, 도움을 요청해보는 훈련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황순길 외, 2018).

셋째로,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우울정서를 완화하고, 자살생각을 완화하는 탁월한 보효요인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긴장과 부정적 감정에 대한 평가와 함께 자아존중감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자아존중감이 낮은 학생의 경우 긴장과 우울의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나고, 일탈적 적응을 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자아존중감이 낮은 학생들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하여 우선적으로 개입해야할 것이다.

긴장과 부정적 감정 속에서 자아존중감을 증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가령 인지적 대처전략으로 긴장상황 속에서 자신을 피해자로 여기지 않고, 긴장상황의 생존자로 자신을 바라보는 인식의 틀을 갖도록 상담을 통해 교정해줄 수 있을 것이다. 상담 시에 긴장 상황 속에서도 발휘되는 개인의 장점과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자아존중감을 증

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이응택 외, 2016).

또한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시행할 때에 청소년이 스스로를 건강하게 이해하고 평가함으로써 자아존중감을 향상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현장의 목소리와도 일치한다. 현장의 실무자들은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데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자아존중감을 이야기하고 있었다(황순길 외, 2018). 자아존중감의 하위구성요소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향상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초등학교 고학년생에서 중학생으로 전환되는 시기에는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자아개념이 크게 변화되고(이봉주 외, 2015), 중학생 이후의 시기부터는 자아존중감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김현순, 2014) 초등학교 고학년생의 시기에 자아존중감을 증진하고 건강한 자아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청소년기에 점차적으로 자아존중감이 형성되어 높은 일관성과 안정성을 가진 후에는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경향이 있으며(Trzesniewski et al, 2003), 성인에게도 자아존중감은 삶에서 중요한 많은 부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며(Orth et al, 2014), 자살의 가능성도 낮춘다는 연구결과(Chatard et al, 2009)를 볼 때 청소년 시기에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조치가 추후에 성인이 되어서까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성인의 자살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와 제언

첫째로, 본 연구에 활용된 변수의 개념을 조작적 정의함에 있어서 연구자의 해석이 반영되었다는 한계를 갖는다. 원자료에서의 부모와의 부정적인 관계, 친구와의 부정적인 관계를 본 연구에서는 부모긴장, 친구긴장으로 명명하였다. 이는 일반긴장이론적 관점을 반영한 것으로, 일반긴장이론에서는 관계에서 원하는 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상황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모두 긴장으로 명명하고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론적 근거와 더 적합성이 높게 측정된 척도를 활용하여 연구의 해석에 신뢰도를 높일 것을 제안한다.

둘째로, 2차 자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자살생각과 우울정서가 단일문항으로 측정되었다는 한계를 갖는다. 우울척도에는 정서뿐만 아니라 인지, 동기, 생리적 우울 등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여 측정할 수 있는데(서미 외, 2018), 본 연구에서는 우울정서만을 단일 문항으로 측정하였다는 한계를 갖는다. 자살생각 또한 단일문항으로 측정되었는데 자살소망, 계획, 충동 등 자살의도와 계획에 대한 정보를 담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자살계획은 자살생각의 심화된 형태로, 자살계획이 있을 경우 자살시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단순한 자살생각보다 높다. 다양한 측면을 담은 포괄적인 자살생각에 대한 척도로는 Reynolds의 자살사고척도(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 SIQ)와 벡(Beck)의 자살사고척도(Beck Scale for Suicidal Ideation, SSI)등이 있다(서미 외, 2018). 추후의 연구에서 위 문항을 활용하여 더욱 심화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우울감 외에도 무망감, 분노, 절망감, 외로움 등 자살생각과 관련된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는(서미 외, 2018) 다양한 감정들을 향후 연구에서 추가적으로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반긴장이론에서 주요한 보호요인으로 언급하고 있는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대인관계 기술, 지능(Agnew, 1992) 등이 긴장요인이 우울정서를 매개로 자살생각으로 이어지는 영향을 완충할 수 있는지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로, 본 연구에서는 횡단자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명

확히 할 수 없었다는 한계를 갖는다. 인과관계를 종단적 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개입방향에 대해서 더욱 풍성한 논의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들의 연령과 발달시기에 따라 긴장요인과 보호요인이 자살생각에 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김원경, 2014), 종단연구를 통해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른 긴장요인과 우울정서, 자살생각의 변화 양상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강경아, 김신정, 송미경. (2009).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의미.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0(3), 269-276.

강동수. (2003). 집단따돌림 피해 아동의 자살생각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강상경. (2010). 우울이 자살을 예측하는가?: 우울과 자살태도 관계의 성별・ 연령 차이. 사회복지연구, 41(2), 67-9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2. 6. 24). “최근 5 년(2017 ~ 2021 년)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료현황 분석“. 보도자료.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41000100&brdScnBltNo=4&brdBltNo=10627

고진영, 이경화. (2001). 유아 · 아동기 자아존중감의 발달적 특성 탐색. 한국영유아보육학, 25(-), 327-351.

곽금주, 문은영. (1995). 심리적 특징 및 우울과 비행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8(1), 1-11.

구본용, 김지은. (2021). 청소년의 아동학대 경험, 우울 및 불안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의 매개된 조절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11), 823-834.

구차순, 김동환.(2013).청소년의 또래괴롭힘 피해 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0(8), 225-256.

김갑숙, 전영숙, 이철우. (2009). 청소년의 부모 애착, 자아분화,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가족치료, 27(-), 209-224.

김기헌, 오병돈, 이경숙. (2013). 청소년 자살예방 정책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218.

김다인. (2017). 청소년 자살시도 관련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김도희. (2015). 부모의 학대와 학업스트레스가 청소년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2(11), 487-515.

김동필. 39 분에 1 명씩…10~30 대 사망원인 1 위는 극단적 선택, 경인일보, 2022. 09. 27

김미숙. (2015). 한국아동의 주관적 웰빙수준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20(-), 14-26..
김보영, 이정숙. (2009). 청소년 자살생각 관련변인에 관한 메타분석. 한국간호과학회, 39(5), 651-661.
김봉금, 김상철. (2017). 청소년의 가정요인이 친구요인을 매개하여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12), 493-504.
김봉자. (2013). 청소년 자살의 원인과 예방에 대한 연구.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2(2), 25-46.
김붕년, 조수철. (2000). 소아-청소년기 우울증의 치료전략. 대한정신약물학회지, 11(-), 216-231.
김상옥, 박주희. (2017). 청소년의 또래간 의사소통, 우울감 및 자아탄력성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247-247.
김선숙, 정정호. (2016). 부모의 삶의 만족도 및 우울이 아동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2), 257-267.
김선아. (2009). 초등학교시기의 심리사회요인과 중학생시기의 자살생각간의 관계-스트레스, 우울감과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4(3), 5-27.
김선호, 박우란. (2019) 초등 자존감의 힘 -소극적인 아이도 당당하게 만드는-. 서울 : 길벗.
김성희. (2012). 중학생의 자살생각과 영향요인.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김소영, 홍세희. (2012). 초기청소년 자살생각의 변화유형분류와 예측. 한국청소년연구, 23(1), 251-275.
김수정. (2008). 빈곤가정 아동,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가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 결식아동,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25), 9-38.
김애경. (2002). 지각된 부모 양육태도 및 사회적 지원과 초기 청소년의 우울 및 외현적 문제와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6(3), 31-50.

김영선, 안혜경. (2010).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이용한 초등학생의 자살생각 관련요인 분석.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2(3), 1379-1399.

김영신. 중학생 4명 중 1명 “난 우울해”…여중생이 더 심해- 서울대의대 김봉년 교수팀, 중학생 457명 조사결과…과도한 수면은 우울감 …, 메디컬 월드 뉴스, 2017. 07. 07

김영한, 조아미, 이승하, 변해진. (2013). 청소년 문제행동 저연령화 실태 및 정책 과제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366.

김영환. (2020). 고등학생의 사회적 지지가 자살생각 예방에 미치는 영향 -성별, 학년, 학교유형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4(5), 193-205.

김영희, 안상미 (2008).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가족갈등과 청소년의 우울 및 비행. 청소년학연구, 15(2), 1-30.

김용희. (2009). 아동의 부모 분리개별화와 애착이 긍정 정서 및 부정 정서에 미치는 영향: 행동적 자율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4(1), 107-124.

김원경. (2014). 한국 초, 중, 고등학생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인. 한국청소년연구, 25(3), 199-231.

김원태. 자살위험군 학생 5명 중 1명은 방치... 전문기관 연계율 매년 감소, 대한뉴스, 2022. 10. 11.

김은경. (2018). 청소년의 연령집단별 자살생각 위험요인. 대한임상건강증진학회지, 18(1), 42-50.

김은영. (2014). 학교폭력피해경험, 우울감, 청소년의 자살에 대한 생각의 관계 검증연구: 일반긴장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논집, 11(3), 93-116

김은주, 홍은주. (2019). 초등학생의 자살생각여부를 결정하는 스트레스 예측요인. 열린부모교육연구, 11(1), 95-112.

김인규, 조남정. (2006).청소년 자살생각에 대한 구조모형 검증. 상담학연구, 7(4), 1189-1202.

김재엽, 정윤경, 이진석. (2009). 가정 내 자녀학대경험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및 사회적 지지관계의 조절효과.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21(-), 119-144.
김중곤. (2018). 성폭력 피해가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및 관련 경찰활동의 정책적 방향. 한국경찰연구, 17(1), 55-76.
김지영, 이경희. (2015). 청소년의 학대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대한간호과학회지, 45(5), 752-760.
김진주, 조규판. (2011). 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자살계획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2(1), 301-314.
김표민, 최원석. (2023). 아동기의 학대 경험이 청소년기의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 : 부정정서와 자아존중감의 매개된 조절효과. 생명연구, 67(0), 145-168.
김현순. (2014).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종단매개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21(3), 409-437.
남윤주, 이숙. (2008). 아동이 지각한 애착과 자아개념, 일상적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놀이치료연구, 12(2), 1-16.
노성덕, 정재우, 김태성, 김경희, 이미현, 배희분. (2016). 청소년동반자의 부모상담 어려움에 관한 실태조사. 인문학논총, 42(-), 183-215.
노용환, 이상영. (2013). 우리나라의 자살급증원인과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00(-), 7-97.
문경숙. (2006). 학업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 부모와 친구에 대한 애착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27(5), 143-157.
문동규, 김영희. (2011).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관련된 유발변인의 메타회귀분석. 상담학연구, 12(3), 945-964.
민하영. (2009). 학령기 남녀 아동의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의 유형별 수준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문화, 21(3), 109-127.
박경애, 구본용, 김원중, 송종용, 이재규, 조은경. (1993). 청소년 자살행동 연구. 서울: 청소년 대화의 광장.
박미현, 박경자, 김현경. (2012). 초등학생 아동의 스트레스와 우울의 5년에 걸친 발달적 변화. 아동학회지, 33(4), 1-17.

박민영. (2020). 일상적 긴장경험이 청소년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대학원.
박병금. (2007). 청소년의 자살생각 관련 요인: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16(3), 505-522.
박병선, 배성우, 박경진, 서미경, 김혜지. (2017). 청소년의 또래애착, 사회적 위축, 우울, 학교생활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분석. 보건사회연구, 37(2), 72-101.
박병선, 심성지, 배성우. (2018). 일반긴장이론에 근거한 청소년의 비행과 자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구조적 관계 분석-성별 및 학교급간 차이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41(-), 101-126.
박선, 문수백. (2012). 학령기 아동의 자살생각과 관련변인들 간의 관계 구조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0(2), 75-86.
박성만, 유근환. (2018). 사춘기청소년의 관계문화형성 및 갈등해결전략에 관한 연구. 사회융합연구, 2(1), 9-20.
박성의. [2020 자살 리포트] 위기의 10 대 ‘어른한테 털어놓으면 나아져요?’, 시사저널, 2020. 05. 25.
박애규. (2009). 부모애착과 청소년의 우울 및 대인불안과의 관계: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박현선. (2016).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권리지수 개발연구 -아동 균형생활시간지표의 활용을 중심으로-. 아동복지 연구소 보고서, 2016(1), 45-83.
박현정, 김휘경. (2022). 사춘기 자녀와 대화에 관한 부모의 인식 연구: Q 방법론 활용. 주관성 연구, 0(61), 23-43.
변현수. (2017). 부모 관여, 학업 스트레스 및 감성지능이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로고스경영연구, 15(1), 105-122.
서미, 김은하, 이태영, 김지혜. (2018). 고위기 청소년 정신건강 상담개입 매뉴얼: 자살 · 자해편. [KYCI] 청소년상담연구.
서종한. (2018). 심리부검 : 사람은 왜 자살하는가. 서울: 시간여행.
서한나. (2011). 초기 청소년기의 자살생각에 관한 종단 연구: 스트레스와 우울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0(3), 629-646.

서희웅. (2020). 학교폭력 가해, 피해 경험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송인한, 권세원, 정은혜, 김리자. (2011). 중학생의 부모-자녀 유대와 자살사고간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이 가지는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8(2), 199-217.
신동준. (2004). 살인과 자살의 문화적 사회구조적 원인. 한국사회학, 38(4), 33-71.
신동준. (2011). 제도적 아노미이론의 통합 이론적 성격과 불평등구조의 이론적 위치. 사회이론, (40), 181-214.
신동준. (2019). 불평등과 범죄의 관계에 대한 아노미 이론의 한계와 뒤르케임의 이론적 통찰. 한국범죄학, 13(2), 111-132.
신연희. (2001). 자아존중감, 청소년 비행, 그리고 어머니의 역할에 관한 연구. 가족과 문화, 13(-), 107-132.
심혜인, 김동현, 곽대경. (2020).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 우울,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부모 방임수준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국범죄학, 14(1), 101-121.
염동문, 조혜정. (2021). 청소년의 성폭력 피해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우울과 자아존중감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32(1), 33-55.
염유식, 김경미, 이승원, 김수미. (2019).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 비교연구 조사결과 보고서. 서울: 한국방정환재단.
오미숙, 심우찬. (2014). 학업 스트레스가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학교사회복지, 29(-), 237-261.
오은영. (2015).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통한 학교적응 방안연구.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대학원.
오창규. (2007). 비행청소년의 가족의사소통 '가족기능' 가족갈등과 재비행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대학원.
오현아, 박영례, 최미혜. (2008).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우울이 청소년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간호학회, 14(1), 35-43.
우채영, 김판희. (2011).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예측하는 변인들 간의 다차원적 구조 분석. 청소년학연구, 18(4), 219-240.

원경림, 이희종. (2019). 청소년기 학업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끼치는 영향에서 학교유대감, 우울 및 불안의 매개효과 : 교사유대감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6(9), 79-104.
유순화. (2007).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전환에 관한 학생들의 기대와 지각. 초등교육연구, 20(1), 355-375.
유준상. (2017). 빠른 2차 성징이 우려되는 여아에 대한 사상의학적 치험 5례. 사상체질의학회, 29(2), 174-181.
유효숙, 서경희, 박영신, 이창주. (2016). 청소년의 우울과 자살생각의 경험 및 이유.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311-311.
윤대호. (2018). 보건계열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보건과 복지, 20(1), 7-24.
윤명숙, 조혜정, 이현희. (2009).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 및 또래애착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인터넷 사용과 음주행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5(2), 131-156.
윤명숙, 이재경. (2010). 부모애착이 초기 청소년 우울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분석. 사회과학연구, 26(2), 69-92.
윤정선. 우리 딸 엄마보다 키 크려면? 초3 겨울방학 '초경' 시작 전 미리 받아야 할 검사. 이코노믹리뷰. 2019. 12. 22.
윤태희, 조영일. (2014). 부모-자녀 애착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종단적 매개효과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7(3), 61-90.
이경진, 조성호. (2004). 청소년 자살 고위험 집단의 심리적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4), 667-685.
이경희, 김지영. (2013). 청소년기 외상경험과 자살생각 관계에서 자기존중감의 조절효과. Tourism Research, 38(2), 79-101.
이규현, 권윤희. (2014). 중학생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11), 820-828.
이복실. (2005). 교정프로그램이 참여와 가족기능에 따른 비행청소년의 태도변화. 석사학위논문. 성공회대학교 시민사회복지대학원.
이봉주, 손선옥, 김윤지. (2015). 아동청소년 학교생활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학교사회복지, 31(-), 37-58.

이성식, 전신현. (2013). 청소년비행 설명에 있어 역할정체성 관련 긴장과 통제: 수정된 두 이론의 검증. 형사정책연구, 24(4), 233-255.
이수현, 이강이. (2015). 성적 부진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모-자녀 관계 스트레스와 자존감의 매개효과: 다집단분석을 활용한 학교급별 차이 탐색. 청소년학연구, 22(9), 183-211.
이승현, 배정이. (2015). 초등학생의 우울과 영향요인. 한국위기관리논집, 11(3), 329-345.
이은희, 최태산, 서미정. (2000). 남녀 청소년들의 우울에 미치는 학교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부모-자녀 의사소통 및 부모의 내재적 지원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2), 69-84.
이응택, 이은경. (2016). 중학생의 학교폭력 피해경험, 우울,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된 매개효과. 청소년문화포럼, -(48), 61-85.
이인정. (2011). 노인의 우울과 자살생각의 관계에 대한 위기사건,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보건사회연구, 31(4), 34-62.
이정숙, 권영란, 김수진, 최봉실. (2007). 자살예방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우울, 자살생각 및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효과. 정신간호학회지, 16(4), 337-347.
이정윤, 허재홍 (2003). 아동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위험요인. 청소년상담연구, 11(2), 85-95.
이차선. (2000). 가정환경, 학교환경,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 - 제주도 청소년을 중심으로. 교육과학연구, 2(-), 109-138.
이창호, 성윤숙, 정낙원, 장상아, 박선영, 이재연. (2012).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실태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396.
이철. (2008). 머튼의 아노미 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긴장이론적 해석과 구조-문화 불일치 명제를 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논총, 18(2), 209-236.

이해경, 신현숙, 이경성. (2006). 비행청소년의 자살사고 예측변인. 청소년상담연구, 14(1), 49-62.
이형권. (2020). (PROCESS Macro를 이용한) 조절된 매개효과분석. 파주: 신영사.
임언영. 학원에서 일어난 초등학생 자살사건. 여성조선. 2016.09.03.
임은미, 정성석. (2009).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우울의 변화 및 우울에 대한 스트레스의 장기적 영향. 청소년학연구, 16(3), 99-121.
임재현, 전동일. (2019). 중학생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 우울과 위축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10), 649-659.
정동하, 정미현. (2011).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비행행동과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경로분석. 한국가족복지학, 16(3), 171-187.
정미라, 장영숙, 김순규. (2011).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 및 학습동기 간의 관계. 아동교육, 20(2), 221-234.
정미선. (201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또래 관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문화포럼, -(25), 139-170.
정선미. (2007).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 소통유형과 자아존중감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건양대학교.
정익중, 이지언. (2011). 청소년기 비만과 외모만족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38(-), 60-80.
정지영, 강향숙, 박은진. (2014). 청소년의 우울과 치료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청소년문화포럼, 38(-), 91-123.
조윤주. (2010). 청소년초기 스트레스의 종단적 변화 양상과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잠재성장모형 분석. 인간발달연구, 17(-), 17-35.
조춘범, 김동기. (2010). 청소년의 우울과 자아존중감의 자기회귀교차지연 효과검증 - 성별간 다집단 분석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2(4), 207.
좌현숙, 변귀연. (2010).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의 전환과정에서 내재화 문제의 변화양상과 예측요인. 학교사회복지, 19(-), 113-140.
좌현숙. (2015).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대수준이 사이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우울의 매개효과. 청소년문화포럼, -(43), 135-161.

최규련. (2010). 가족환경과 학업 및 친구요인이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6), 95-111
최미례. (2000).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중재효과와 매개효과.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대학원.
최원기. (2004). 청소년 자살의 사회구조적 원인 연구. 사회복지정책, 18(-), 5-30.
최정아. (2019). 중학생의 자살생각에 대한 사이버괴롭힘 피해 및 차별 경험의 영향. 보건사회연구, 39(3), 280-313.
최정임, 정동훈. (2014). 스마트 폰을 통한 청소년의 성 관련 콘텐츠 노출 원인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4), 445-455.
최지원. (2020). 다문화 청소년의 언어긴장이 비행과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 계승어 능력, 자아존중감, 부모지지의 조절효과 탐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통계청. (2011). 청소년 통계: 2011년 청소년 통계,
통계청. (2016) 한국의 사회동향 2016.
통계청. (2022) 2021 사망원인통계.
하상훈. (2001). 청소년의 자살충동과 심리사회적 변인과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하연희. (2001). 중학생의 자살 생각 실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한기석, 이상철. (1992). 청소년 자살의 원인과 치료적 개입. 인제의학, 13(2), 151-158.
한상철. (2006). 보호요인 강화 프로그램이 고위험군 청소년의 적응유연성에 미치는 효과. 교육심리연구, 20(1), 119-136.
홍기혜. (2020). 랜덤포레스트 머신러닝 알고리즘 기반 남・여 청소년의 자살생각 예측 및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72(3), 157-180.
홍나미. (2012).청소년 자살생각에 대한 부모학대와 또래괴롭힘의 영향에서 대인관계내재화와 절망감의 매개효과. 한국사회복지학, 64(1), 151-175.
홍명숙. (2017). 청소년 자살생각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정책개발연구, 17(1), 63-98.

홍성철, 김문두, 정영은, 이창인, 곽영숙, 김현주, 박원명, 윤보현, 신지현, 현미열. (2014). 한국 초등학생들의 자살 생각 관련 요인. 대한정신약물학회, 25(2), 79-84.
홍세희, 노언경, 정송. (2016a).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보호요인에 대한 메타분석. 조사연구, 17(1), 137-166.
홍세희, 정송, 노언경. (2016b).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위험요인에 대한 메타분석. 청소년학연구, 23(5), 153-179.
홍영경, 이무식. (2020). 우리나라 성인에서 수면시간이 정신증상, 자살생각 및 자살시도에 미치는 영향: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1(5), 372-383.
홍영수. (2004). 청소년의 자살행동에 대한 생활스트레스 및 자기존중감의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40), 153-182.
홍은기. (2012). 초등학교 고학년의 정서조절능력과 학업 스트레스 및 정신건강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황순길, 김동민, 강태훈, 손재환, 김화연, 김지혜. (2016). 2016 년 전국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황순길, 이혜정, 이귀숙. (2018). 초등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성 검증. 청소년상담연구, 26(1), 299-320.
황영순. (2003).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가족과 학교환경요인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대학원.
황진홍, 이주리. (2012). 아동의 사교육 참여 시간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탐색: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성취의 매개적 역할.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372-372.
Agnew, R. (1992). Foundation for a general strain theory of crime and delinquency. Criminology, 30(1), 47-88.
Agnew, R. (2001). Building on the foundation of general strain theory: Specifying the types of strain most likely to lead to crime and delinquency.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8(4), 319-361.
Agnew, R., Brezina, T., Wright, J. P., & Cullen, F. T. (2002). Strain, personality traits, and delinquency: Extending general strain

theory. Criminology, 40(1), 43-72.
Agnew, R., Mazerolle, P. (2010). Editors' Introduction. Journal of Contemporary Criminal Justice, 26(2), 128-129.
Agnew, R. (2015). Using General Strain Theory to Explain Crime in Asian Societies. Asian Journal of Criminology, 10(2), 131-147.
Agnew, R. (2017). Revitalizing merton: General strain theory. In The origins of American criminology (pp. 137-158). Routledge.
Agnew, R., Brezina, T. (2018). Juvenile Delinquency : Causes and Control.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Angold, A., Erkanli, A., Silberg, J., Eaves, L., Costello, E. J. (2002). Depression scale scores in 8-17-year-olds: effects of age and gender.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and allied disciplines, 43(8), 1052-1063.
Baumeister, R. (1990). Suicide as Escape From Self. Psychological Review, 97(1), 90-113.
Beck, A. T., Kovacs, M., Weissman, A. (1979). Assessment of suicidal intention: the Scale for Suicide Idea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2), 343-352.
Ben-Yehuda, Ariel, Aviram, Shai, Govezensky, Jose, Nitzan, Uri, Levkovitz, Yechiel, & Bloch, Yuval. (2012). Suicidal behavior in minors-diagnostic differences between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of Developmental and Behavioral Pediatrics, 33(7), 542-547.
Besser, A. & Zeigler-Hill, V. (2012). Positive personality features and stress among first-year university students: Implications for psychological distress, functional impairment, and self-esteem. Self and Identity, 13(1), 24-44
Blum, D., Jaworski, C. G. (2015). Chapter Three From Egoistical and Anomic Suicide to Egoistical and Anomic Homicide: Explaining the Aurora, Colorado Mass Shooting Using Durkheim, Merton

and Agnew. Gun Violence in American Society: Crime, Justice and Public Policy, 49.

Branden, N. (2021). The power of self-esteem. Health Communications, Inc.

Canetto, S. S., Sakinofsky, I. (1998). The gender paradox in suicide.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28(1), 1-23.

Chase-Lansdale, P. L., Wakschlag, L. S., Brooks-Gunn, J. (1995). A psychological perspective on the development of caring in children and youth: The role of the family. Journal of Adolescence, 18(5), 515-556.

Chatard, A., Selimbegović, L., & Konan, P. N. D. (2009). Self-esteem and suicide rates in 55 Nations.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Published for the European Association of Personality Psychology, 23(1), 19-32.

Cho, S., Glassner, S. (2019). Examining the mediating effects of negative emotions on the link between multiple strains and suicidal ideation: A longitudinal analysis. Archives of Suicide Research.

Cole, D. A., Maxwell, S. E., Martin, J. M., Peeke, L. G., Seroczynski, A. D., Tram, J. M., ... & Maschman, T. (2001). The development of multiple domains of child and adolescent self-concept: A cohort sequential longitudinal design. Child development, 72(6), 1723-1746.

Coopersmith, Stanley. (1981).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2nd Ed., Pala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

De Leo, D., Schmidtke, A., Diekstra, R. F. (Eds.). (2007). Suicide prevention: A holistic approach.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115-117.

Donnelly, H. K., Han, Y., Kim, S., Lee, D. H. (2023). Predictors of suicide ideation among South Korean adolescents: A machine

learning approach.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329(-), 557-565.

Dubow, E. F., Kausch, D. F., Blum, M. C., Reed, J., Bush, E. (1989). Correlates of suicidal ideation and attempts in a community sample of junior high and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2), 158-166.

Feinstein, L., Bynner, J. (2004). The importance of cognitive development in middle childhood for adulthood socioeconomic status, mental health, and problem behavior. Child Development, 75(5), 1329-1339.

Froggio, G. (2007). Strain and Juvenile Delinquency: A Critical Review of Agnew's General Strain Theory. Journal of Loss & Trauma, 12(4), 383-418.

Ge, X., Conger, R. D., Elder, G. H., Jr (2001). Pubertal transition, stressful life events, and the emergence of gender differences in adolescent depressive symptoms. Developmental psychology, 37(3), 404-417.

Gould, M., Greenberg, T., Velting, D., Shaffer, D. (2003). Youth Suicide Risk and Preventive Interventions: A Review of the Past 10 Year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42(4), 386-405.

Grøholt, B., Ekeberg, Ø., Wichstrøm, L., Haldorsen, T. (2005). Suicidal and nonsuicidal adolescents: different factors contribute to self-esteem.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35(5), 525-535.

Harter, S. (1990). Processes underlying adolescent self-concept formation. In R. Montemayor.

Hay, C., Meldrum, R. (2010a). Bullying victimization and adolescent self-harm: testing hypotheses from general strain theor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9(5), 446-459.

Hay, C., Meldrum, R., Mann, K. (2010b). Traditional bullying, cyber bullying, and deviance: a general strain theory approach..

Journal of Contemporary Criminal Justice, 26(2), 130-147.
Herba, C. M., Ferdinand, R. F., VERHULST, F. C. (2007). Long-term associations of childhood suicide ide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46(11), 1473-1481.
Heydari, A., Nouri, M., Ebrahimi, M. (2013). Strain theory and suicide ideation. Journal of Basic Applied Sciences Research, 3(8), 475-480.
Hollander, M. (2008). Helping teens who cut: understanding and ending self-injury. Guilford Press.
Hong, J. S., Kral, M. J., Sterzing, P. R. (2015). Pathways from bullying perpetration, victimization, and bully victimization to suicidality among school-aged youth: A review of the potential mediators and a call for further investigation. Trauma, Violence, & Abuse, 16(4), 379-390.
OECD. (2019). Health at a glance. Paris: OECD.
Ivanich, J., Teasdale, B. (2018). Suicide ideation among adolescent American Indians: an application of general strain theory. Deviant Behavior, 39(6), 702-715.
Kaufman, J. M. (2009). Gendered responses to serious strain: the argument for a general strain theory of deviance. Justice Quarterly, 26(3), 410-444.
Keith, S. (2018). How do traditional bullying and cyberbullying victimization affect fear and coping among students? An application of general strain theory. American Journal of Criminal Justice, 43(-), 67-84.
Kidd, S., Henrich, C. C., Brookmeyer, K. A., Davidson, L., King, R. A., Shahar, G. (2006). The social context of adolescent suicide attempts: Interactive effects of parent, peer, and school social relation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36(4), 386-395.
Kim, J., Shim, H. S., Hay, C. (2020). Unpacking the dynamics involved in the impact of bullying victimization on adolescent

suicidal ideation: testing general strain theory in the Korean context.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110(-), 104781.
Kuhn, D., Siegler, R. S., Eisenberg, N. (2008).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An advanced course. John Wiley & Sons.
Lee, M., Larson, R. (2000). The Korean 'examination hell' : long hours of studying, distress, and depress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9(2), 249-271.
Magro, S., Utesch, T., Dreiskämper, D., Wagner, J. (2019). Self-esteem development in middle childhood: Support for sociometer theory.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43(2), 118-127.
Mann, J. J., Waternaux, C., Gretcher, L. H., Maline, K. M. (1999). Toward a clinical model of suicidal behavior in psychiatric patients. Amsterdam Journal of Psychiatry, 156(-), 181-189.
McLoughlin, A. B., Gould, M. S., Malone, K. M. (2015). Global trends in teenage suicide: 2003-2014. An International Journal of Medicine, 108(10), 765-780.
Merton, R. K. (1938). Social structure and anomi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5), 672-682.
Mishara, B. L. (1999). Conceptions of death and suicide in children ages 6-12 and their implications for suicide prevention.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29(2), 105-118.
Mullany, B., Barlow, A., Goklish, N., Larzelere-Hinton, F., Cwik, M., Craig, M., Walkup, J. T. (2009). Toward understanding suicide among youths: results from the White Mountain Apache tribally mandated suicide surveillance system, 2001-2006.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9(10), 1840-1848.
Mullins, E. R., Irvin, J. L. (2000). What research says: transition into middle school. Middle School Journal, 31(3), 57-60.
Nock, M. K., Green, J. G., Hwang, I., McLaughlin, K. A., Sampson, N. A., Zaslavsky, A. M., Kessler, R. C. (2013). Prevalence, correlates, and treatment of lifetime suicidal behavior among

adolescents: results from the National Comorbidity Survey Replication Adolescent Supplement. JAMA psychiatry, 70(3), 300-310.

Orth, U., Robins, R. W. (2014). The development of self-esteem.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23(5), 381-387.

Orth, U., Erol, R. Y., Luciano, E. C. (2018). Development of self-esteem from age 4 to 94 years: A meta-analysis of longitudinal studies. Psychological bulletin, 144(10), 1045-1080.

Ortin, A., Elkington, K. S., Eisenberg, R., Miranda, R., Canino, G., Bird, H. R., Duarte, C. S. (2019). Suicide attempts and course of suicidal ideation among Puerto Rican early adolescent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47(10), 1723-1734.

Petersen, A. (1994).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during adolescence. Depression and body image problems in adolescence. Women's Health Issues, 4(2), 63-65.

Pinto, A., Whisman, M. A. (1996). Negative affect and cognitive biases in suicidal and nonsuicidal hospitalized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5(2), 158-165.

Poulin, F., Chan, A. (2010). Friendship stability and change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Developmental review, 30(3), 257-272.

Reinherz, H. Z., Tanner, J. L., Berger, S. R., Beardslee, W. R., Fitzmaurice, G. M. (2006). Adolescent suicidal ideation as predictive of psychopathology, suicidal behavior, and compromised functioning at age 30.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63(7), 1226-1232.

Reynolds, W. (1991). ASIQ, adult 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 professional manua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Incorporated.

Reynolds, W. M., Johnston, H. F. (Eds.). (2013). Handbook of dep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Rubin, C., Rubenstein, J. L., Stechler, G., Heeren, T., Halton, A., Housman, D., Kasten, L. (1992). Depressive affect in "normal" adolescents: Relationship to life stress, family, and friend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62(3), 430-441.
Savin-Williams, R. C., Berndt, T. J. (1990). Friendship and peer relations. In S. S. Feldman G. R. Elliott (Eds.), At the threshold: the developing adolescent. Harvard University Press. 277-307.
Sheftall, A. H., Asti, L., Horowitz, L. M., Felts, A., Fontanella, C. A., Campo, J. V., Bridge, J. A. (2016). Suicide in elementary school-aged children and early adolescents. Pediatrics, 138(4). 1-10.
Shneidman, E. S. (1993). Suicide as psychache: a clinical approach to self-destructive behavior. Jason Aronson.
Shneidman, E. S. (1996). The suicidal mind. Oxford University Press.
Siegel, L. R. (2004). Peer group experiences, friendship quality, and depressive symptomatology in adolescence: a longitudinal analysis. Doctoral dissertation, Temple University.
Sigfusdottir, I. D., Asgeirsdottir, B. B., Gudjonsson, G. H., Sigurdsson, J. F. (2013). Suicidal ideations and attempts among adolescents subjected to childhood sexual abuse and family conflict/violence: the mediating role of anger and depressed mood. Journal of Adolescence, 36(6), 1227-1236.
Simon, T. R., Swann, A. C., Powell, K. E., Potter, L. B., Kresnow, M. J., O'Carroll, P. W. (2001). Characteristics of impulsive suicide attempts and attempter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32(1), 49-59.
Trzesniewski, K. H., Donnellan, M. B., & Robins, R. W. (2003). Stability of self-esteem across the life spa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1), 205.
van Renen, L. J., Wild, L. G. (2008). Family functioning and suicidal

ideation/behaviour in adolescents: a pilot study. Journal of Child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20(2), 111-121.

Watanabe. (2014). (발달심리학자가 알려주는) 10살의 심리학(임정희, 역), 서울 : 이아소.

Winfree Jr, L. T., Jiang, S. (2010). Youthful suicide and social support: exploring the social dynamics of suicide-related behavior and attitudes within a national sample of US adolescents. Youth Violence and Juvenile Justice, 8(1), 19-37.

Yildiz, M. (2015). A test of general strain theory: suicidal ideation and attempt among adolescents in Istanbul. Doctoral dissertation, Louisiana State University Louisiana.

Yildiz, M., Solakoglu, Ö. (2019). Strain, negative emotions, and suicidal behaviors among adolescents: testing general strain theory. Youth & Society, 51(5), 638-658.

Abstract

Examining self-esteem as a moderator in the mediation model of strain,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Cho, Eun Ah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examine how self-esteem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strain factors and suicidal ideation via depression on the basis of General Strain Theory.

This study specifically targets upper elementary school students among adolescents. This relatively understudied area has recently garnered attention. A concerning 20% of upper elementary school students experience suicidal ideation, indicating a worrisome issue. They are more susceptible to impulsive behaviors related to these thoughts(Seo, 2018). Furthermore, research indicates that suicidal ideation among upper grades elementary school students is likely to

escalate into concrete suicide plans and attempts within a year (Nock et al, 2013). Moreover, suicidal ideation in the upper grades of elementary school not only impacts this period but also has a negative impact that extend into adulthood (Herba et al., 2007; Reinherz et al., 2006). By gaining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factors contributing to suicidal ideation within this particular age group, valuable insights can be obtained to develop effective intervention and prevention strategies.

This study is designed from the perspective of General Strain Theory (GST), which has proven to be an excellent framework for explaining adolescents' deviant adaptation. Recent studies have extended the application of GST to encompass suicidal ideation as part of deviant adaptation. Agnew suggested that GST can provide a explanation for suicidal ideation (Agnew et al., 2010). Empirical research, including longitudinal studies, has supported the mediating pathway of GST in the progression of suicidal ideation (strain → negative emotion → suicidal ideation) (Kim, 2018; Park Min-young, 2020; Cho et al., 2010; Hay et al.). Moreover, escape theory, a theory well-known for explaining suicide, proposes a mediating pathway that aligns with GST (Baumeister, 1990).

Strain from academic achievement goal and relationship(parent and friend) were examined as strain factors in this study, alongside depression as a negative emotion. In GST, these strains are emphasized as the primary factors of strain (Agnew, 2001). Domestic studies further reinforce the significance of academic strain, parental strain and friend strain as crucial factors among adolescents, including upper elementary school students (Lee et al., 2015; Lee et al., 2006). These strains lead to various negative emotions, with depression being a prominent negative emotion linked to suicidal ideation (Reynolds et al., 2013) and identified as a critical risk factor for suicidal ideation (Lee, 2011; Choi,

2019; Donnelly et al., 2023). In other words, Individuals may contemplate suicide as an escape from strain when they cannot cope effectively (Agnew, 1992).

Indeed, not all adolescents experiencing strain develop suicidal ideation through depression. Those with protective factors can effectively cope with strain (Agnew et al., 2018). One such protective factor highlighted in GST is self-esteem (Agnew, 1992). Self-esteem acts as a defense against suicidal ideation, empowering individuals to actively confront strain and depression. It also aids in the development of coping strategies for managing depression (Agnew, 1992). Thus, self-esteem likely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train, parental strain, and friend strain in influencing suicidal ideation through depression, though this aspect has been relatively underexplored in previous studies.

Based on the foregoing, the present study posited the following research hypotheses: "Research Hypothesis 1: Depression emotions will mediate the effect of strain factors on suicidal ideation." , "Research Hypothesis 2: As self-esteem increases, the impact of strain factors on suicidal ideation, mediated by depressive emotions, will decrease."

To examine these research hypotheses, data from the "Study on Condition and Policy Tasks of Youth Problematic Behavior" conducted by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were utilized. Out of 3,164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grades 4 to 6, 3,032 students had complete data for all the study variables and were included in the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with the Ordinary Least Squares (OLS) estimation method was employed. For testing Research Hypothesis 1, PROCESS macro model 4 was used, while Research Hypothesis 2 was tested using PROCESS macro model 59.

The results of the analysis provided support for all the research

hypotheses. It was found that depression mediated the effect of all strain factors (academic strain, parental strain, friend strain) on suicidal ideation. Furthermore, self-esteem emerged as a significant moderator, weakening the indirect effects of these strain factors on suicidal ideation, mediated by depression.

The research findings carry the following theoretical implications. Firstly, the study conducted a more in-depth exploration of the mechanisms about suicidal ideation compared to previous research, through the analysis of mediating and moderating effects. Secondly, it provided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by encompassing variables related to individual psychological emotions, family environment, and school environment. Additionally, the study sheds light on the importance of focusing on upper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 age group overlooked despite the critical period for suicidal ideation, by presenting various reasons for such emphasis.

From a practical perspective, the study holds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ly, as various factors interactively influence suicidal ideation, collaborative efforts between the family and school environments are important in preventing suicidal ideation. Secondly, the study highlights self-esteem as a crucial protective factor that mitigates suicidal ideation by alleviating depression. Consequently, efforts to enhance adolescents' self-esteem play a pivotal role in prevention. The study also discusses th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diverse programs to achieve this goal.

keywords : upper elementary school student, adolescent,
suicidal ideation, self-esteem, General Strain Theory
Student Number : 2017-22471